특별연구
2021

축제의 인문학적 제논의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Humanities Discussions of Festivals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www.kcti.re.kr

특별연구 2021

축제의 인문학적 제논의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Humanities Discussions of Festivals

류정아

연구책임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제1장 축제 연구의 주요 개념과 분석 도구 ····· 1

제1절 축제 연구의 개념적 배경 3
1.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3
2. 축제의 인문학적 키워드 5
3. 축제 확장성 10
제2절 축제의 연행적 분석 14
1. 연행론의 유용성 14
2. 사육제와 연행 18

제2장 축제 분석의 대상과 방법: 텍스트와 컨텍스트 융합 ····· 23

제1절 축제와 갈등 25
1. 사회 역동성과 축제 25
2. 축제의 시간 27
3. 갈등 표출과 승화기제 32
제2절 감추기와 드러내기 41
1. 객관화된 환상주의 41
2. 인간의 한계 넘기 42

결론 ····· 47

참고문헌 ····· 50

ABSTRACT ····· 55

표 목차

〈표 1〉 문화적 장르로서의 연행의 진행: “Liminal"에서 ”Liminoid"로 17
〈표 2〉 축제 역사 20년 이상 축제 사례(국내) 26

그림 목차

[그림 1] 하위징아와 카유아의 놀이 개념 비교도 7
[그림 2]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샤또르나르 시의 '마드렌드 축제' 이미지(1992년 필자 촬영) 13
[그림 3] 벵슈축제 21
[그림 4] 스페인의 산페르민축제 29
[그림 5] 제주도 들불축제 31
[그림 6] 스페인 발렌시아 불꽃축제 31
[그림 7] 피터 브뤼겔의 그림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33
[그림 8] 바흐친의 일상성과 축제성 개념도 34
[그림 9] 페루의 태양제와 원주민 35
[그림 10]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의 과거와 현재 38
[그림 11] 영국 런던 노팅힐 페스티벌 이미지와 클라우드 존스 사진 39
[그림 12] 실버스터글라우스(Silvesterkläuse) 가면 활용 축제 사례 45

제1장

축제 연구의 주요 개념과 분석 도구

제1절 축제 연구의 개념적 배경

1.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축제 그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대신에 축제의 경제적·정책적 효과, 기술적 내용 분석, 축제 예산, 축제 만족도, 참여도, 관광효과 등 축제의 외형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조사하고, 측정하고, 계량하고, 예측하는데 더 역점을 두었다.

사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연구결과에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관행적인 연구도 많았다. 축제의 본질적 내용 그 자체보다는 연구의 목적이나 밝혀내고자 하는 기대효과에 따라서 연구결과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도 중요하다. 축제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연구가 이러한 방식에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반면 축제의 내용과 의미, 가치 등에 집중을 하다보면, 연구의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제의 인문학적 논의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축제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몇 개의 사례들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축제연구의 깊이를 높여서 학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축제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적 배경에서는 호모루덴스와 환타지 개념, 축제적 유토피아와 갈등현상 표출의 개념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축제의 의미와 가치가 확장되는 현상을 지역성, 문화정체성, 사회참여 등의 개념들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축제의 인문학적 분석연구의 도입부분이 된다.

둘째, 축제의 연행적 분석의 중요한 키워드 개념들을 요약·정리하고, 연행적 관점을 축제 분석에 적용하는 것의 효율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의사소통의 방법이자 기제로서의 연행(Performance)이론, 텍스트와 콘텍스트(Context)의 연계성, 종교와 전통이 축제 속에서 표현되는 양태, 전통이 축제와 만나면서 민속화(Folklorisation) 되는 과정(여기서 민속은 더 이상 화석화된 과거 삶의 잔존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1]) 등을 몇 개의 사례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셋째, 축제와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축제정책 관련 연구가 사회문화 맥락적 차원에서 분석되지 않아 발생한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 축제 연구의 대부분이 여가활동 또는 문화예술적인 콘텐츠의 홍보를 통한 정체성 획득과정 또는 그것의 효과에만 집중했음을 우선 지적하였다. 이어서 축제의 고유기능과 문화적 맥락에서 갖는 중층적 의미 등이 축제 이해에 중요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축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관련하여,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조적 문제의 노출과 공론의 장으로서의 축제의 역할, 그로 인한 갈등 해결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 등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이 축제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역동적 특성의 표현체로서의 축제, 축제적 시간의 사회문화적 함의, 갈등의 축제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모순과 저항구조, 구조와 반구조의 충돌, 갈등의 표출과 승화, 상생과 공존의 방향 모색 등의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축제의 목적이 사회의 전복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공동체의 생태계 복원이라고 볼 때, 축제와 갈등의 문제는 역설이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수요 소품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면이 실제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가면이 축제의 핵심적인 도구 또는 더 나아가서 축제의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면과 가면축제를 중심으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감추고자 하는 것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표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 가면과 축제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오래전부터 심도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럴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는 분야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그다지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약간의 스케치 정도로밖에 다루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가진다.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지는데 본 연구가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적 의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 타자성의 회복, 불확실성의 극복, 상징과 표상의 조화 등의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즉 가면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인간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때로는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더 실체와 가까울 수도 있다는 점은 수많은 연구 숙제를 제시하는 주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민속은 현 시점에서 볼 때, 항상 과거의 것만은 아니다. 현재도 시간이 지나면 미래의 민속이 되기 때문이다. 민속(folklore) 개념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한 논의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나, 이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 정도로 갈음하고자 한다.

2. 축제의 인문학적 키워드

가.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루덴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생각한다'는 뜻의 '사피엔스'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현 인류의 종명이다. 인간의 능력 중 관념적 또는 이성적인 사고능력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적 인간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은 그 양태만 다를 뿐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임은 분명하다.

이 개념과 함께, 비록 공식적인 종명은 아니지만, 인간의 권력 지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강조하는 '호모 폴리티쿠스(정치적 인간)', 인간의 효용성 극대화 욕구를 강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라는 개념 또한 인간의 주요 성격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이 용어들에서 말하는 인간은 논리적 판단 능력에 근거해서 게임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그로 인해 얻어지는 권력을 최대로 누리고자 하며, 항상 최적·최고의 효과를 얻어내고자 대단히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쟁을 즐기는 존재들이다. 아마도 산업자본주의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개념이라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잠시만 쉬었다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이 진짜 그렇게 매 순간 경쟁하면서 끊임없는 이윤 추구에 집착하면서 사는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그런 경향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잠시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권력극대화, 이윤최대화 라는 피곤한 상황에 자신의 삶을 녹여내기 보다는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며 평온한 삶을 꿈꾼다.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노닥거리면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무용하게 놀거나 '멍때리고', 몸을 흔들면서 노래하고, 어디 하나 쓰일 곳이 없을 것같은 것을 만드는데 며칠 동안의 시간을 들이기도 한다. 재주가 없는 것을 알지만,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못 치는 기타줄을 튕겨보기도 한다. 괜히 혼자 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픽 쓰러지면서 히죽대거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되어서 울고 웃기를 반복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허망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성실한 행위'들을 감추고자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인간 행위의 본연적인 모습과 창조적인 문화 의미를 찾아내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요한 하위징아[2]는 놀이를 창조적 문화원동력으로 해석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의 『호모 루덴스(Homo

2)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1945)는 네덜란드 흐로닝언n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흐로닝언대학교와 라이프치히(Leipzig)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05년부터 약 15년 동안 흐로닝언대학교에서, 그리고 1942년까지 레이덴대학교(Leiden University)에서 역사교수로 있다가 나치에 잡혀 사망할 때까지 억류상태에 있었다. 14~15세기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생활·사상을 밝힌 『중세의 가을』(1919)과 16세기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에라스무스』(1924), 『호모 루덴스』(1938) 등의 저서가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Ludens)』는 그의 어린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카니발 행렬을 보고 쓴 책으로, 놀이나 연행연구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그는 평생 의례·축제·놀이 연구에 집중하였다. 역사가·문화사가·언어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1933년 "문화에서 놀이와 진지함의 경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고, 이것을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다시 다루면서 자신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축제를 인간의 유희 본성이 표현된 문화적 구현물이라고 보고, 놀이는 겉으로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삶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았다. 문화는 원초(原初)부터 유희적인 것에서 배태되었으며, 또 다시 이 유희 속에서 문화가 발전한다는 주장은 당시에도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당시의 아카데믹한 환경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기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치지 않고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중국·일본 등 동양까지도 포함시켜서 유희 개념을 언어학적·문헌학적·역사적으로 고찰했다. 책이 출판된 지 10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 읽어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보석같은 책 『호모 루덴스』에 많은 학자들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전 세계적으로 놀이는 이미 엄밀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놀이의 파생효과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진다. 그것이 놀이, 축제, 연행 연구가 탄탄한 기반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축제학' 또는 '연행학'이라는 학문분과가 공식적으로 생겨난다면 이 분야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연구자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벤트학'이라는 분야가 이미 대학의 정식 학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인문학 분야에서 축제나 놀이연구를 공식적인 학문분과로 받아들이는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많은 축제 연구에서 보다 본질적인 것보다는 최종적 결과물에만 천착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축제와 환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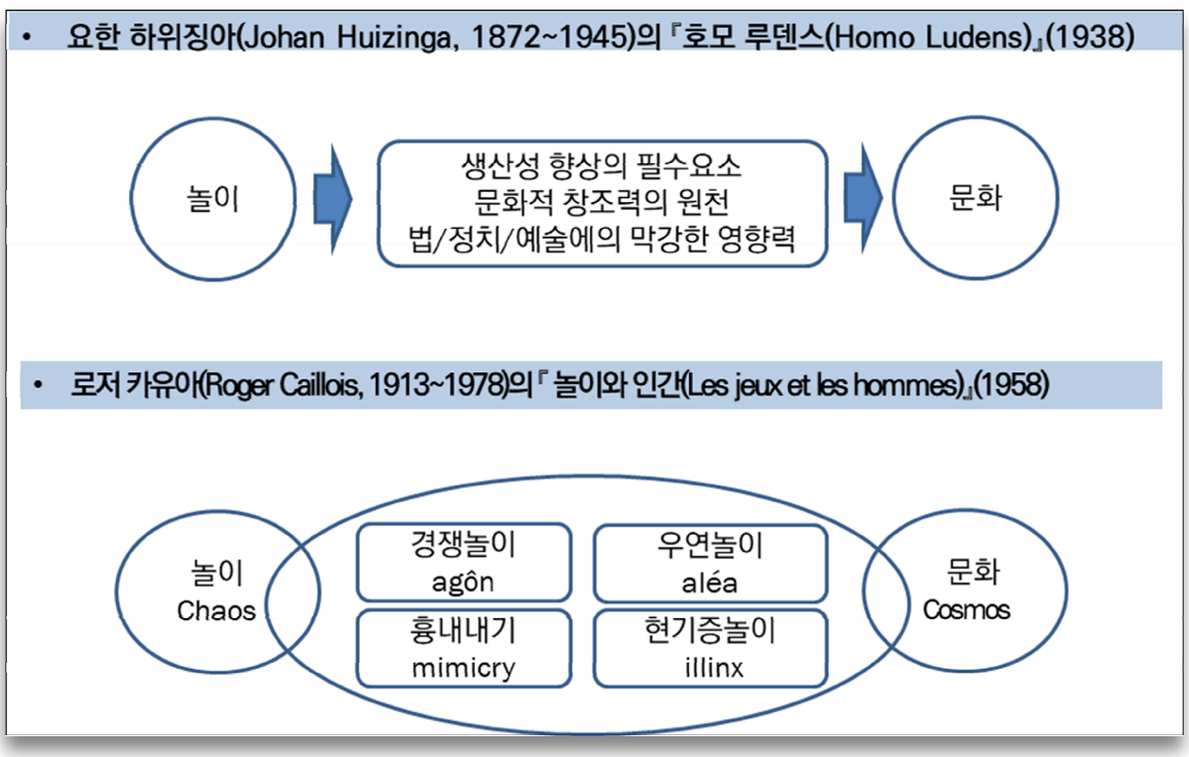
하위징아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는 『바보들의 축제』[4)]에서,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축제하는 인간(homo festivus), 환상적인 인간(homo fantasia)"이라고 말하면서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이거나, 또는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 박소영은 "현대사회의 호모루덴스"(『축제: 일상의 초월과 경계 넘나들기』, 2020, 동연)에서 '호모 파베르'와 '호모 루데스' 개념을 비교하면서 하위징하의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4) Cox, Harvey, 1971, *La fête des fous: essai théologique sur les notions de fête de la fantasie*, Seuil, Paris,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들은 고난도의 규칙과 논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카오스와 코스모스 개념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 즉 놀이는 '카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회규범은 '코스모스'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놀이와 규범은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반대 개념이지만, 사실 종국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위징아와 콕스에 이어서 진행된 놀이에 대한 연구는 로저 카유아(Roger Caillois)의 『놀이와 인간(*Les jeux et les hommes*)』[5]에서 정점을 이룬다. 카유아는 모든 형태의 문화는 놀이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위징아가 제도, 법률, 전쟁, 의례, 예술 등에서 놀이적 요소를 찾아내었다면, 카유아는 신화와 상징연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놀이형태를 좀 더 분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음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



[그림 1] 하위징아와 카유아의 놀이 개념 비교도

카유아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 활동의 원동력이 놀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찾는 존재라고 보았다. 카유아는 놀이를 속성에 따라 '아곤(agôn)', '알레아(aléa)',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스(illinx)' 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이 축제 구성의 원천소스라고 보았다.

경쟁놀이인 '아곤'은 지속적 훈련과 노력, 승리욕구 등 놀이요소로서 항상 경쟁에서 이긴 자와 패한 자가

5) Caillois, R., 1989(1938), *Le myth et l"homme*, Galiimard, Paris; 1989(1950), *L'homme de le sacré*, Gallimard, Paris; 1991(1958), *Les jeux et les hommes*(이상열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등 참조함. 세 번째 책이 이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된 저서이지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카유아는 신화와 상징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연구의 토대 위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존재한다. 우연놀이인 '알레아'는 카드, 주사위놀이, 제비뽑기, 복권 등 운수나 요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이다. 이 두 가지 놀이는 참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칙을 엄수해야 하는 놀이이다.[6]

역할을 흉내 내는 '미미크리'는 가면을 활용한 가장무도회나, 병원놀이나 연극과 같은 역할극과 같은 놀이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놀이이다. 어지러움증을 즐기는 '일링크스'는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서커스놀이, 청룡열차와 같은 무섭고 두려운 롤러코스터 등 일종의 순간적인 의식의 공포상태를 즐기는 놀이이다. 놀이에 대한 선호도가 극명히 갈리는 놀이유형이 될 것이다.

카유아는 놀이에 참여하는 인간은 최소한 그 순간에는 모두 평등해진다고 했다.평상시에는 남녀·노소·빈부·미추 등으로 등급이 나눠지고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놀이라는 시공간에 들어가면 모두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개봉하여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러한 놀이 개념을 영상미학으로 살려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작가나 감독은 이 점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그야말로 카유아의 놀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놀이 속에 일단 들어가 있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점, 바로 이 포인트가 이 영화에 전 세계인들을 몰입하게 한 것이다. 물론 놀이는 죽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지만, 영화에서는 목숨을 걸고 놀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놀이와의 차이이다. 우리가 보통 게임하다가 '진다'거나 혹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로' 죽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게임에서 경험하는 가장 극단적인 긴장의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는 죽지 않는 보통의 놀이에 참여하는 동안 인간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서로 같이 재미있게 즐기기', '승리를 얻어내는 능력을 칭송받기', '이긴자의 기쁨을 만끽하기', '규칙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기' 등의 능력이 기회까지 부가적으로 얻어낸다.

현실적 사회 속의 인간은 가면놀이 속의 변장으로 비현실적이거나 초월적인 환상과 꿈속으로 들어가고, 가끔은 광란에 가까운 춤을 추고, 과감한 노출도 불사하면서 해방감에 도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감, 쓰러질듯한 어지러움, 엄청난 행운에 대한 기대 등이 환타지 효과를 낸다. 축제는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기제가 되는 것이다.

6) 경쟁놀이로서의 축제는 상당히 많다. 그 중 용선제로 불리는 중국의 단오절 축제의 프로그램에도 경쟁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굴원(Qu Yuna)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의례에서 축제로 발전한 것으로 대나무에 싼 찹쌀떡인 쭝쯔 먹기, 웅황주 마시기, 드래곤보트경주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 축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동들을 위해서 쉽게 정리된 책자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참고자료: Casay Malarcher, 2020, *The Dragon Boat Festival*, Seed Learning, Series Editor Casey Malarcher.

다. 갈등과 유토피아

축제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일시적으로나마 실현해주는 시공간이다. 페루의 '태양제'는 과거 화려하고도 찬란했던 잉카문명의 태양숭배를 재현하는 축제이다. 태양제는 과거 잉카제국의 수도였으며 현재도 아름다운 고산지대 도시 쿠즈코(Cuzco)에서 페루 원주민이 고난과 불평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외침이다.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그들의 화려한 의상, 장엄한 퍼레이드, 의식화된 의례만이 보일 수도 있다.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은 아프리카로부터 강제 압송된 흑인노예들의 아프리카 의식, 남미 인디안 문화, 그리고 남미의 식민지배자인 유럽 기독교 문화가 융합되고 변형되어 현재와 같이 자극적이면서 위험하기까지 한 축제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축제 또한 식민지 이전의 평화로웠던 그들의 과거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그리는 행위가 아닐까 한다. 현재 브라질 주민의 삶이나, 페루 원주민의 삶도 결코 녹녹치 않다는 것이 이러한 축제들의 본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또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위징아는 축제를, "성스러운 행동은 '성스러운 날(휴일)'을 축하한다"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 성스러운 날에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소에 모여서 집단적인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성사, 희생, 성스러운 춤, 경기, 공연, 신비의례 등은 축제를 축하하는 행위이다. 의례는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성인식을 기다리는 젊은이에게 가혹한 시련일 수도 있고, 가면들은 무시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7)]

카유아는 놀이에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보았다.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성한 상태에서 일상의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면서 일상 시스템의 모순과 갈등의 원인과 가치 등을 이해하게 된다고 본다.[8)]

조르즈 바타유[9)]는 축제를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이라고까지 묘사한다. 그는 "사물의 질서가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라면 신성은 그 연결을 풀어헤치는 놀라운 폭발, 즉 폭력이다". 또한 "축제는 끊임없이 독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며, 축제가 성취되면 이젠 순수광채의 전염적 충동이 생산활동을 가로막는다. 신성은 정확히 말해서 나무를 태워서 소전시키는 불길과는 같다. 축제는 사물의 대립항으로서의 불길이며, 그래서 축제는 열과 빛을 분산시키면서 번지고, 불을 붙이며, 축제의 불길에 휩싸인 사물은 다시 불길이 되어 다른 것에 불을 붙이고 앞뒤 없이 타오른다." 라고 말한다.[10)]

즉 그는 축제는 삶을 용해시키는 도가니로 기능하지만, 공동체는 축제의 이러한 내재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기능하게 한다고 본다. 즉 축제는 일상의 규칙을 일시적으로 파괴하지만,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동체가 보다 명료한 의식을 갖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7)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 2017(초판 2010),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p.65
8) Caillois, R., 1989(1950), *L'homme de le sacré*, Gallimard, Paris
9) Georges Bataille, 1897~1962. 프랑스 사상사, 소설가, 철학, 사회학, 경제적, 예술론, 소설, 시, 문예비평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룸. 이단적 지식인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음.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10) 조르쥬 바타유 저, 조한경 역, 2020(1973), 『종교이론: 인간과 종교·제사·축제·전쟁에 대한 성찰』, 문예출판사, p. 63~65

3. 축제 확장성

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학술적 관심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놀이에 대한 연구가 1930년대 후반에 하위징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그 이후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세계는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놀이에 대한 연구는 사그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관심은 다시 지역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까지 간주되면서 뜨겁게 다시 달아 올랐다. 세계 대전 이후 새롭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거듭하여 이어오는 축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아비뇽연극페스티벌이나, 유럽의 꽃이라 불리는 에딘버러페스티벌 등이 모두 전쟁 직후인 1947년에 시작된 축제들이다.

경제재건과 지역정체성, 지역문화 활성화, 관광 활성화, 경제적 여유, 문화적 특성과 역사에 대한 관심, 여가생활의 강조, 예술의 대중화, 삶의 질과 웰빙 가치의 부각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변화과정에서 축제적 연희형태가 새롭게 부각되어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났으며, 복원되었고, 강조·각색 되었으며, 새롭게 만들어졌다.[11)]

축제는 단지 유쾌한 즐거움의 표현에 머무르는 것만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비극 속에 죽어간 이들을 추념하는 살풀이나 기억의례도 분명히 축제의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역모죄로 억울하게 죽은 정치인의 원한을 푸는 의식으로 3000명이 가마퍼레이드 행렬에 참여하는 일본 오사카의 '텐진마츠리', 어린 왕의 죽음을 기리는 강원도 영월의 '단종문화제', 강원도 횡성군에서 벌어지는 전통 장례문화 축제인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광주의 '5.18기념제', 제주의 '4.3제'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12)] 축제가 항상 즐겁고 흥겨운 것을 만끽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놀이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표현해 내는 것이라면, 축제는 문화를 융합하고 승화시켜서 삶을 다시 되짚어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반복적·정기적으로 내 삶을 반추해보게 하는 것이 축제이다. 그래서 결국 다양한 축제를 많이 개최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건강해지고 훨씬 더 균형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13)]

이 연구는 축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과연 축제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 의제를 던지고자 시작된 연구이다. 축제는 인간 내면에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담고자 하였다.

---

11) 현재 유럽사회의 마을들의 다양한 축제의례 사례를 통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삶의 변화형태, 연속성, 문화의 재건 등의 현상을 살펴보는 다양한 논문들이 소개된 *La fête de village: Continuités et reconstructions en Europe contemporaine* (Sous la direction de Laurent Sébastien Fournier, 2011, L'Harmattan, Paris)은 축제 기간 동안 마을의 정체성을 포현하기 위해서 농촌의 상징성, 종교적 의례, 정치경제적인 맥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다양한 관점의 논문들을 통해서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다.

12) 주지완의 『뉴욕의 축제』(2014, 문학세계사)는 뉴욕에서 벌어지는 15개의 축제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축제의 주요 내용, 기원, 특징 등을 뉴욕의 역사, 미국 전체의 역사, 사회적인 문제, 갈등양상, 종교적 특성 등 다양한 사회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인 특성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축제와 함께 뉴욕시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침서 역할도 한다. 이 책에서 축제는 사회 이해의 '계기판'의 역할을 한다.

13) 이와 관련하여 표정옥은 『놀이와 축제의 사회성』(2009, 서강대출판부)에서 놀이의 개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예를 들어서 신화, 상징, 축제, 게임, 상상력 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의 다양한 축제와 놀이의 사회, 역사, 문화, 종교적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지역과 문화정체성

최근 지방을 국제화시키기 위한 각 지방자치체의 노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개최, 국제공인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국제적 규모의 엑스포 개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의 건설 그리고 지역축제의 국제화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14] 이 중에서 지역축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지역축제가 포괄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그것이 복합적이며 단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할 때 상당히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국제화 논의와 관련하여 지역축제가 더욱 자주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지역 내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15] 여기서 고려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의 성격 또한 대단히 다양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가지는 중요성은 자주 생략되고 단지 가시적인 최종결과물만 성급하게 얻어내려고 함으로써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기도 한다.

축제는 그것이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원의 형태가 어떤 것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축제의 주요 소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문화상징화 과정 그리고 문화가치가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축제 이해에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16]

최근에는 '문화요소'보다는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면서 문화유산과 문화콘텐츠가 사용되는 방식이나 고려되는 차원, 그리고 각각의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방법들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콘텐츠, 특히 특정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문화콘텐츠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그 본래 지역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7]

문화적 가치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문화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숙성되어 온 결과물이다. 따라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외형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어 온 과정에 대한 섬세한 탐색이 지역의 문화콘텐츠의 가치 이해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18]

---

14) 페스티벌이나 대형이벤트 등의 기획, 운영, 펀딩, 결산 등과 같은 실질적인 매뉴얼의 형식을 갖춘 자료를 보기 원한다면, *Festival & Special Event Management*(J. Allen, W. O'Toole, R. Harris, I. McDonnell, 2011, John Wiley & Sons Australia)를 보기를 바란다. 이벤트 기획에 필요한 모든 항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5)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견한 흥미로운 자료로, P. McClusky의 *Ontarion Garlic: The Story from Farm to Festival*(2015, The History Press)를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뉴욕의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마늘이라는 식물이 가지는 가치를 알게 되고, 이어서 마늘 경작을 시작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대량 생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얻게 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다.

16) 유럽 농촌사회에서 연희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 *Fêtes et rites agraires en Europe: Métamorphoses?*(Sous la direction de J. Bonnet Carbonell et L. S. Fournier, 2004, L'Harmattan, Paris)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의 표상이자 농민의례로서의 축제의 사례들과 현대 농촌사회에서 연희되는 축제와 의례들의 역동성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농촌의 현재와 과거가 축제를 통해서 서로 조우하면서도 표상하는 과정이 다양한 관점의 연구로 설명되어진다.

17) 최근에 발간된 김혼비, 박태하의 『전국축제자랑: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2021, 민음사)는 단순한 축제 소개서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문체로 저자가 축제의 한 부분이 되어서 축제가 펼쳐지는 상황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다. 쉽지만 유익하게 축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축제연행과 문학적 예술성의 결합이라고 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8) 이 부분에서 말하는 지역이란 작게는 한 국가 내에서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지역 등과 같이 대륙 전체가 특정한 문화역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지칭할 수 있는 말이다. 축제와 관련하여 '유럽지역'이라는 지역적 범위는

나. 일상과 사회참여

축제와 일상의 긴밀한 관계는 유럽인들의 축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축제가 상당 정도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의 다양한 측면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축제역사를 지닌 유럽인들의 문화에서 축제가 가지는 의미는 복합적이다. 축제의 수는 물론이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많은 축제들이 기독교와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유럽인들에게 현재의 기독교는 일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실질적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축제에서 표현되는 종교적 전통은 유럽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증요한 기능을 한다.

유럽 전통축제가 호응을 적극 얻어내는 이유는 삶의 의의를 전통성에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비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원을 찾아 떠나고 거기에서 평소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 전통축제는 문화적 욕구와 맞아 더욱 활성화되고, 전통 축제들이 활발히 부활하였다. 전통 축제는 새로운 존재의 이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문화요소가 축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라틴민족은 국가와 같은 공식적 구심체보다는 가족, 친구 같은 비공식적인 조직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소집단의 규범체계를 더욱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집단적 결속력의 강조가 오히려 축제문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자발적인 결사체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치활동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901년에 '결사체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지방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치적 소모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소규모 자치적인 주민결사체들이 현재 프랑스의 지역축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사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축제와 같은 주민 자치적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즉 축제가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19] 유럽인에게 축제는 역사와 종교, 다양한 사회문화적 삶이 유기적인 연결되는 기회이다. 축제 참여는 공동체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회이며, 이것은 진정으로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다음에 제시된 이미지들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지금도 활발히 연희되고 있는 수레축제 사례 이미지이다. 오래 전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 과정 중에 찍은 사진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이 사진들은 1990년대 초기에 찍은 사진들이지만, 지금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샤또르나르(Châteaurenard)라는 인구 약 15,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50여 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된다. 이곳 주민들에게 있어서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뿌

하나의 축제문화를 형성하는 공동체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전반적 역사와 문명 발전사와 축제와의 관련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다. 김헌의 『신화와 축제의 땅 그리스 문명기행』(2021, 아카넷)이 참조할만한 자료이다.

19) 축제는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잊혀진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회복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지역의 토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물적 자원은 물론이고, 민속, 전통, 종교적인 특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지역 공동체 특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L'inventaire des fêtes en Europe* (Sous la direction de Laurent Sébastien Fournier, 2017, L'Harmattan, Paris)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폴란드, 세르비아 등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리와 정신을 공유하는 순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열정을 한 여름의 더위의 열기보다 뜨겁다.[20]

[그림 2]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샤또르나르 시의 '마드렌드 축제' 이미지(1992년 필자 촬영)

20) http://www.chateaurenard.com/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풍성한 최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절 축제의 연행적 분석

1. 연행론의 유용성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비록 그것의 근원이 오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해있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기능과 의미를 달리하게 된다. 즉 그것이 속해있는 사회와 상호주관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간에 지속적인 조율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빈센트(Vincent, 1986)가 잘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분석의 관점은 '체계'에서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뒤르껨과 래드클리프-브라운으로부터 근원한 '체계'의 개념이 '기계'나 '유기체'의 개념들과 어울리는 것이라면, 반 제넵, 보아즈, 말리노프스키로부터 근원한 '과정'의 개념은 '맥락' 또는 '역사적인 사건' 등의 개념들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인류학적 개념화의 원천이 되는 경험적 토대의 변화, 그리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우선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기어츠는 이미 이러한 과정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Geertz, 1984). 현지조사 작업에 체계적인 분석시각을 주로 적용했던 인류학자들도 점차 과정분석방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체계보다 과정을 더 중시 여긴다는 것은 역동주의적 변화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보다 유동적이고 다면적이며 그러면서도 개별적인 문화 요소와 사회문화 복합적 맥락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축제는 비실용, 비일상, 비생산 등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발전한다. 축제는 복합적인 연행현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문화기호의 구체적 표상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삶의 토대인 문화 분석의 유용한 지표가 된다.

Olav Harsløf는 2020년에 발간한 책[21]에서 축제 연구를 위한 연행이론은 터너(Victor Turner)와 세크너(Richard Schechner)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다양한 축제이벤트들은 그것의 형태와 내용, 신화, 의례, 자연적 특성이나 행위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행적 특성에 의해서 긴밀한 내부적 연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해내기 위해서 고대축제와 현대적인 락페스티벌을 비교하고 있다.

21) Olav Harsløf, 2020, *The Great Festival: A Theoretical Performance narrative of Antiquity's Feasts and the Modern Rock Festival*, Routledge, London & New York

이 부분에서는 축제가 가지는 특수한 문화적 성격을 분석할 때 연행이론의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가. 의사소통 기제

행위자(acteur)와 관람자(spectateur)의 연행적 관계는 개인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로 관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의미 또한 동시에 확장된다. 사람들은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과연 그러한 방식과 내용이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거나 의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개인은 이것을 어떠한 과정과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행위자(acteur)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표현할 때, 관람자(spectateur)는 행위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관람자가 행위자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완벽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문화적 맥락의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행위자와 관람자는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도와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고 능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제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일정한 문화적 코드를 공유한 개인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규정한 문화적 기호를 기초 원리로 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발하고 상대방도 그 코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표현방식을 고안해 내는데 그다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 이것은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사람이 어떤 사회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교환되는 말과 행위에는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일정한 문화적 코드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사이거나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형식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할 때, 공연을 펼치고 관람할 때, 행위자와 관람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수많은 말과 몸짓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연행(représentation, performance)적 의사소통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쌍방간의 의사소통의 한 수단 또는 방식으로 연행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이 펼쳐지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기호나 체계, 그리고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의 이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측면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22]

22) 이러한 견해는 비교적 최근 수행된 연행 연구자료로, 주현식의 『호모 퍼모먼스: 담론의 시대에서 퍼포먼스의 시대로』(2019,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의 머리말에서, "주체성 형성을 퍼포먼스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강조될 용어들은 상호행위성, 몸, 체현, 감정, 사건, 참여적 앎, 관계, 과정,

문제는, 과연 이것을 개인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넘어서서 보다 확대된 의미의 의사소통과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관점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표현되는 축제현상에 적용시켜 보려는 시도이다. 축제에서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환타지와 일탈, 또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축제는 연행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자 머리 속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뤄지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행위가 축제이기 때문이다.

나. 텍스트와 콘텍스트

연행(Performance)은, 그림이나 상징, 기호 등으로 지각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술적 표현, 표현하는 행위, 언어적 환기, 스펙터클을 펼쳐 보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따라서 연행의 범주에는, 의례나 의식, 의례화 과정, 샤마니즘, 위기의 해결, 일상생활의 연행, 대면행위놀이, 예술행위과정, 연극공연, 축제연희 등이 포함될 수 있다.[23]

바우만(Bauman & Briggs, 1990)은 연행을 실체와 사회적인 반사행위로서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보고, 연행적인 사건을 텍스트와 맥락(context)의 융합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문화적인 연행체들은 공동체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상적 맥락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연행의 외형과 의미가 어떻게 담화의 형태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연행이론의 근본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행이론은 구술문학, 언어자료 분석에서 시작되어 점차 신화, 의례, 연극, 일상적인 구술행위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24] 바우만이 연행이론을 언어행위 분석에 주로 적용하였다면, 터너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의례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극과 드라마 간의 상호복합적인 관계 분석에까지 적용하였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리미날리티' 개념을 '리미노이드' 개념으로까지 확장하여 사회드라마 분석에 적용한다. 그는 정치·경제·법률적 과정 등까지 사회드라마로 보았다(Turner, 1990:13). 아마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권력과정도 이러한 연행분석을 적용한다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동료이자 제자인 세크너[25]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연극행위, 제스츄어, 표정행위 분석에 이 이론

사이성, 전이(Liminality) 등으로 구별된다. 호모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저자, 배우와 상호 행위하는 독자, 관객의 참여가 예술 작품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예술의 성격 자체가 변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p.7

23) 연행이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인류학적 영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야는 의례나 연극, 페스티발 또는 축제연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터너(1974, 1982a), 프리스비(Frisbie, 1980), 세크너(Schechner 1977)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민속연구에 적용한 것으로는, 바우만(1977, 1986, 1992), 벤-아모스와 골드스타인(Ben-Amos & Goldstein 1975)의 연구가 있다.

24) 이미원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전통과 퍼포먼스: 전통연희의 현재화를 중심으로』(201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는 한국의 역극적 연행에서 전통의 수용방식과 변형, 세계화와 대중화 등에서 변형과 적응의 과정 등을 퍼포먼스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5) 과정이론에서 의례적 상징들은 복합적이고 다가치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으로 역동적인 의미와 지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례는 주기적으로 연희되는 총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능 또는 변형을 사회구조 속에서 밝혀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Schechner(1977)는 의례적인 연행과 연극적인 연행을 구분하였다. 그는 부연하면서, "연행이란 대단히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괄한다. 특히 연극은 동물행위(인간행위를 포함해서)를 의례화한 것으로부터 일상생활의 연행(인사하기,

을 적용하였다. 터너와 셰크너의 논리는 다음의 도식적 그림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

의례적인 상황에서 재통합되는 리미날한 상태에서 신성성과 유희성이 재결합한다. 여기서 절대적인 권위가 표현되는 코큐니타스 상황이 유도된다. 연극도 마찬가지이다. 연극관람이야말로 연희의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희적이면서도 동시에 신성하고 신비한 경험이며 연희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시공간적인 상황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종교적 의례가 끝나면 다시 세속적인 시간이 흐르듯이 연극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는 다시 일상으로 재통합된다.

〈표 1〉 문화적 장르로서의 연행의 진행: “Liminal"에서 ”Liminoid"로

<table>
<tr><td colspan="5">기술적으로 “단순한” 사회</td></tr>
<tr><td>분 리</td><td colspan="3">Liminal</td><td>재 통 합</td></tr>
<tr><td rowspan="2">세속적·일상적인
시공간에서 분리</td><td rowspan="2">신성한
의사소통</td><td rowspan="2">유희적
재결합
전도</td><td>a. 사회적 범주 사이에서의
절대적 권위</td><td rowspan="2">세속적인
일상으로 복귀</td></tr>
<tr><td>b. 사회적 범주 내에서의
코뮤니타스</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기술적으로 “복합적인” 사회
Liminoid</td></tr>
<tr><td colspan="5">다양한 유형과 장르의 문화적 연행</td></tr>
<tr><td colspan="5">연 극</td></tr>
<tr><td>분 리</td><td colspan="3">Liminal</td><td>재 통 합</td></tr>
<tr><td>1. “여가”시간
2. “특별한”공간
3. 연습,워크샵</td><td colspan="3">1. 신성하고,고풍스럽고,신비한 것의 의사소통
2. 유희적 재결합: 실험연극/ 초현실주의적 코미디/ 광대놀이(전도의 규칙과 구조를 밝혀냄)/ 그로테스크한 스펙터클
3. a. 연출가의 권위
b. ‘코러스 라인’ (주연급 배우만이 넘을 수 있는 무대 앞 1/3에 처진 백선) 코뮤니타스</td><td>1. ‘열기 식히기’, 의례 행위
2. 후기-연행, 저녁식사 등</td></tr>
</table>

출처: Turner, 1986:9 참조

셰크너는 연극이 의례로부터 발전한 것이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역으로 연극에서 의례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있다. 특히 그는 연극연행의 심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행자의 훈련, 연습, 연행 직전의 준비, 그리고 관중이 연행관람을 결정하고, 옷을 차려입고,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연행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 연행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것들까지 모두 봐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연극적 연행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연행자, 그리고 연행을 기획하는 연출가, 텍스트나 연행행위, 시간, 공간, 관중의 여섯 개 인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축제의 준비기에는 일상적인 시공간으로부터 일시적 단절과 분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축제가 연희되는 리미날한 단계에 진입하면 행위와 몸짓, 사물들은 평소와는 다른 맥락에 처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감정표현하기, 가족적인 정경 등과 같은 것)을 거쳐 의례와 의식 그리고 대규모의 극장 이벤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들은 연행에 이르는 연속체(continuum)에 나타나는 결절들이다(Schechner, 1977:1).”라고 하였다.

다. 그리고 축제가 종료되면 일상을 회복하고 모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지만 축제 연희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의례와 연극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동일하다.

연행이론은 축제 연구의 폭을 상당한 정도 입체적으로 확대시켰다. 표정, 제스츄어, 대면행위 등 기존의 사회문화 연구(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연극학 등) 분야에서 부분적이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사소통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민속, 종교, 의례, 축제, 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가 상호 결합되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배타적인 학문의 벽을 허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육제와 연행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통이나 민속의 맥락적 이해라는 것은 그것을 사회구조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는 것을 말한다.[26] 기존의 전통이나 민속자원의 연구는 대부분 텍스트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와 사회 그리고 전통이나 역사 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육제도 사실 민속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육제 분석에 연행이론을 적용한다면 사육제는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살아 있는 문화요소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종교과 전통

사육제 때는 기독교적 사순절이 도래하기 전에 일상의 전도나 금기의 파괴와 같이 과격하면서도 극단적인 표현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축제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민중축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면서 서구적 축제의 기원으로 사육제(카니발)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카니발이 벌어지는 시기는 11월 1일의 만성절에서 3월 경의 사순절 직전까지의 기간이지만, 주로 1월 6일의 예수공현절에서 사순절 직전까지의 시기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사순절 직전의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카니발의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다. 이때는 일상생활의 리듬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고, 성직자의 위선을 조롱하거나 외설 등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와 같이 이 시기는 일상의 금기들이 풀어지면서 평소에 감춰져 있던 사실들을 노출시켜도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되는 시기로 간주된다. 카니발의 저항성은 중세시대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성직자들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서 현재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26) 민속의 맥락적 이해는, 각 민족이나 국가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는 민속의상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축제 때 착용하는 민속의상의 의미나 기원에 대한 국가 별 차이를 섬세한 그림과 함께 소개한 R. Turner Wilcox의 *Folk and Festival Costume: A Historical Survey with over 600 Illustrations,* (2011, Dover Publications. INC. N.Y.)를 참조할 수 있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탈놀이, 탈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생산적이거나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이 지나고 자연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봄의 도래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의 단오제 시기의 의미와 유사하다. 농한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농번기로 들어가는 시기가 단오 절기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독교적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의례적인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카니발은 결국 당시의 절대적인 기독교적 권위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으며, 일반 민중들은 카니발을 통해서 일상에서 억압되었던 욕구를 발산하고 다시 규범적인 도덕적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간다. 즉 일상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욕구들이 축제기간 동안 표현되고,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니발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치적인 갈등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제는 인간의 공격본능을 의례화함으로써 그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스닐(Mesnil, 1974)은 이미 오래 전에, 사육제는 '출생-죽음-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상황변화를 통해서 '재생'을 완성시키는 축제의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사육제는 기독교적 중세사회라는 맥락 하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중세기에서 근대기로 넘어오면서 보다 더 분명한 성격을 띠게 된다. 도시사회가 제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제도를 정당화하는 권력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축제는 중세말기와 르네상스기를 거치면서 도시적이고 부르주아적이며 협동체적인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는 공식적인 가치체계와는 대조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즉 제도 외적인 측면으로서 '축제-저항(fête-contestation)'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27]

바흐친의 표현에 의하면, 축제는 사회집단의 세계관이 투사된 것으로 '암시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신성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28] 즉 축제는, "모든 형태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존의 원리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영속성과 부동성을 정지시키면서 완전히 정반대적인 것을 주입시키는 것" 으로서 중세의 공식적 문화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 된다(Bakhtin, 1978:274).

27) Freitag, M., «De la ville-société à la ville milieu», *Sociologie et Société*, vol.III, n.1, mai, Le pres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1971, pp.25-27; Bakhtine, M., *L'oeuvre de François Rabelais et la culture populaire au Moyen Age et sous la Renaissance*, Paris, NRF, 1970. 참고.

28) 몽골의 나담페스티벌은 이러한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담축제는 징기스칸이라는 몽고인들의 영웅이 전사를 기르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축제이벤트로서 몽골의 전통 민속놀이들에서 중요 소재를 따와서 몽골의 문화역사를 축제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축제를 어린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료들도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어 있을 정도로, 이 축제는 지역문화의 상징으로서의 지역축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Liana Robinson, 2020, *The Naadam Festival*, Seed learning, Series Editor Casey Malarrcher

나. 축제와 민속

사육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단절'의 시간이고, 이 단절은 문화적으로 함축된 의미와의 관계 하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축제에 투사되는 사회적인 집단이 더 이상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출생-죽음-부활'이라는 함축적 의미는 더 이상 축제의 고유의미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축제의 시간이나 장소도 이 사육제적인 특성에 맞지 않는다. 사육제적 유형은 서서히 '민속화 된 축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육제라는 시공간과는 다른 '스펙터클'이나 수동적 축제가 등장한다. 여기서 행위자와 관람자는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제 축제는 탈의미화, 탈신성화되고, 개체화되고 소비되는 객체가 된다. 여기서 축제의 시간은 일시적인 공동체의 응집력을 잠시 동안이나마 되살리는 시간이 된다. 축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탈의미화'와 '재의미화'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벨기에의 벵슈(Binche) 축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육제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29]

벵슈축제는 사순절 전의 일요일부터 재의 수요일(사순절의 제 1일)까지 벨기에의 작은 마을인 벵슈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일 년 내내 이곳의 주민은 이 축제를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보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축제에 대한 열정이 크다. 매년 비올라와 손풍금 소리, 신나는 춤, 섬광같은 조명이 외딴 마을을 아주 소란스러운 곳으로 바꾼다. 뚱뚱한 분장의 사람들이(Gilles) 과장된 몸짓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행진하고 마을은 관광객으로 가득 찬다. 모든 집들은 개방되고, 주민 상호간 방문이 증가하고 모두의 얼굴 표정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마르디 그라(Mardi Gras, 재의 화요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벵슈 카니발의 상징적인 인물인 질(Gilles)의 옷 입히기가 시작된다. 이 의식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남자들이 가장을 하고 여자들이 돕는다. 질의 복장에는 고대적인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다.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와 검은색 사자문양이 그려져 있다. 질로 분장한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질로 분장한 이들은 외부 관중들이 마을에 밀어닥치지 않은 아침에 마을을 여기저기 거닌다. 이들은 혈색 좋게 감탄하는 표정의 전통적인 가면을 쓰고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오후가 되면 질들은 금속틀에 200 내지 300개의 타조깃털로 장식한 현란한 모양의 모자를 쓴다. 행렬과 춤, 오렌지 던지기 등이 이어지고, 마을 중앙에서 질(Gilles), 어릿광대(Pierrots), 선원(Marins), 농부(Paysans) 등이 모여 스펙터클을 벌인다.

벵슈축제의 기원은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행사의 잔재라고 알려져 있다. 페루의 잉카에서 카스티유(Castille)의 왕들까지 연결되는 행렬이 1549년에 최초로 벌어졌는데, 이 때 벵슈의 마리 드 옹그리(Marie de Hongrie)라는 여자가 자신의 남동생인 황제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조직했던 환영식이 이 축제행렬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축제는 근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변화되면서 벵슈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즐기는 축제로 변화하였다(De sike, 1994:94-95 참조).

29) De sike, 1994:94-95 참조

https://www.google.co.kr

[그림 3] 벵슈축제

벵슈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질'이라는 인물이다. 이 인물의 이미지는 1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진다. 1850년 이후, 벵슈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곳이 중요한 경제활동 중심지역이 되기 시작한 이후에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지배적인 계층이 축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 축제에 새로운 세계관이 삽입되었다. '우스꽝스러운 사람'인 질은 점차 '위세와 호화로운 치장을 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미지 변형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들의 존재성을 강조하고, 권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계층이 이 축제를 차지하게 되면서 축제는 변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는 축제의 두 가지 주제, 즉 사육제적인 축제와 민속화된 축제가 겹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소 탈의미화된 기호학적인 체계 속에서 섞여서 나타난다. 벵슈축제의 질이라는 인물이 이것을 전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Mesnil, 1974 참조).

본래 사육제란 '축제-죽음-부활'이라는 주기를 통해 재생되는 시간에 참여함으로서 공동체적 구조 속에 있는 사회적 집단의 응집력을 재확인하는 축제였다. 그러나 현재의 축제공간은 더 이상 과거의 사육제적 축제가 그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 연희되는 전통축제를 바흐친의 '출생-죽음-부활'의 개념이나 터너식의 '리미날리티' 개념이 이야기하는 상징적 유형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현재의 축제에서 재생이나 전이기의 개념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축제연희의 논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론적인 차원에서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논리틀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확고하다.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변화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축제분석의 관점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연희하기 위한 것'으로서보다는 '연희를 보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의 역동적 변화상황을 사회문화 맥락적 변화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제2장

축제 분석의 대상과 방법: 텍스트와 컨텍스트 융합

제1절 축제와 갈등

1. 사회 역동성과 축제

1850년 전후에 미국에서 반노예제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는 자료가 책자로 출간된 것을 보게 되었다.[30]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각료들에게 노예해방선언의 초안을 낭독한 후 전쟁 승리까지는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해 9월 앤티탬 전투에서[31]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링컨에게 이 선언문을 낭독할 기회가 왔다. 제2 초안을 내각에게 낭독하였고, 수정을 가한 후에 1863년 정식 노예해방 선언문을 1861년 1월 1일에 온 세계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4번이 넘도록 반노예축제가 개최되었다는 자료는 놀랄만하였다. 위에 언급된 자료에는 반노예축제가 가지는 의미, 과정, 축제 재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노예제도라는 범죄가 여전히 미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에 대해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경종을 울리고, 자유와 인본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최소 1,300개가 넘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32] 1300개가 넘으니 엄청나게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본은 꽤 규모를 가진 축제만도 2만개가 넘어서 축제가 없으면 쓰러지는 나라라고까지 표현되기도 한다. 인구수가 약 6500백만 명이 조금 넘는 프랑스는 대략 10만 개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고르고 골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것들만 따져도 6천개가 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는 결코

30) National Anti-Slavery Festival, 2017(1858?), *Report of The Twenty-Fourth National Anti-Slavery Festival*, Forgotten Books.
31) 1862년 9월 앤티탬 전투에서는 북군 3000명, 남군 2600명이 사망해 시체가 도랑을 가득 매울 정도였을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투였음.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93 참조
32) 우리나라 지역축제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자료는 2016년에 나온 『한국지역축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데, 이 자료는 2014년 기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10년마다 전국 지역축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2006년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약 1200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들은 공식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축제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에 이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3000개~4000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축제가 약 180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 서울시 내부 자료에 의해서 정리된 축제의 수는 약 500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프랑스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축제 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것은, 전체 인구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분명하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제의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행정적 차원의 축제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거나, 행정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정도가 충분한 축제들의 수의 증가만이 의미있는 축제의 수 증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아마도 다양한 모습의 축제는 향후 더 많이 개최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체로서의 삶이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 지가 축제의 모습과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현재 한국에서 개최되는 약 1,300여개 정도의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한 지역축제이다. 단오제, 춘향제, 줄다리기, 탈춤축제 등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축제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축제들이 많게는 30~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축제에서부터 10년이 채 안된 축제들까지 다양하다.

비교적 개최 연 수가 많은 축제들이 많이 연희되는 곳은, 서울, 부산, 전남, 전북,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당진기지시줄다리기는 연수가 500년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오래 전부터 개최되는 축제로 알려져 있다.

〈표 2〉 축제 역사 20년 이상 축제 사례(국내)

지역	축제명과 개최 횟수
서울	개천절대제 52, 고종명성후가례재현 37, 어천절대제 53, 연등축제 58, 남이장군사당제 32, 서울약령시한방문화축제 20, 선농대제 23, 낙성대인헌제 27
부산	부산연등축제 36, 동삼풍어제 51, 영도다리축제 22, 동래읍성역사축제 20, 낙동민속예술제 22, 수영전통민속제 43
대구	약령시한방축제 37
광주	고싸움놀이축제 32, 빛고을 정월대보름한마당 20, 임방울 국악제 22
울산	처용문화제 48
경기	화성문화제 51, 회룡문화제 29, 행주문화제 27, 남양주다산문화제 28, 율곡문화제 27, 양주별산대정기공연 48
강원	의암제 30, 단종문화제 48, 정선아리랑제 39, 현산문화제 36
충북	중봉충렬제 39, 영동난계국악축제 47
충남	당진기지시줄다리기 500
전북	전주단오 56, 전주대사습놀이 40, 정읍사문화제 25, 소충·사선문화제 52, 고창 모양성제 41
전남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21,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1, 지리산남악제 70, 서편제보성소리축제 40, 초의문화제 22
경북	안동민속축제 43, 평해남대천단오제 30
경남	마산만날제 27, 개천예술제 64, 의병제전 42, 3.1민속문화제 53, 남명선비문화축제 38
제주	탐라문화제 53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한국지역축제실태조사』참고 연구자 재구성

지역축제의 문화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에 원동력이 된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축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축제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촉발제이자 차별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여 지역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축제는 지역브랜드 가치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기제이자 문화 콘텐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사회는 지식정보 사회에 이어서 창조적 사회로 진입하고 여기에서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는 매력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10여 년 간 정부의 지역축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과정이나 의미, 또는 가치보다는 결과와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조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고유 속성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 여가향유, 관광콘텐츠, 지역문화정체성 등이 요소들이 축제의 겉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면, 이 외피 속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축제의 갈등의 구조와 그것의 표현방식 그리고, 그를 통한 갈등의 승화과정이 축제 이해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를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축제를 바라보는 보는 진지한 시각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축제의 시간

가. 모순과 저항

현대인이 최근까지도 오로지 경제적인 풍요로움, 사회적 성공, 특권적 권력 등을 얻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서로 상생하는 일상과 다양성 가치에 기반한 '축제적 여유로움'이 주는 진정한 효과와 그러한 삶이 주는 행복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하필 '축제적 여유로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서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큰 고민 없이 이야기 하는 축제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내고자 축제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한다.

하루하루를 매일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24시간을 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멈추거나 또는 되돌리고자 하는 축제, 특히 지역축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해본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한가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핀잔을 받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잔뜩 의기소침해져서 혼자 축제장을 방문해보면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놀란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있을까? 지극히 합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서를 항상 챙기고자 하는 현대 문명인들이 아닌가? 근사한 공연장도 아니고 정갈한 전시장도 아니다. 이들이 이 비합리성의 전형이며 때로는 오고가기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로 부대끼면서 아주 피곤해지는, 그리고 결코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리 만무한 이 축제장에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33]

혹시 물질이 넘쳐나는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 점차 스러져가는 '인본성에의 갈증'을 축제 속에서 조금이나마 채워보고자 하는 간절함 같은 것에 이끌린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치로운 것으로 향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허기는 어떤 것일까? 현실 속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아는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통해서 마음 속 깊은 곳의 유토피아로 향해 가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

33) 물론 이러한 식의 문제의식은 최근 전 세계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 현실이라는 특별한 상황까지 같이 고려해서 고민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특별한 상황으로 곧 극복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축제 환경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본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축제는 문화적으로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자연의 힘겨운 소명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영역들을 포용하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모두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역의 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 뒤비뇨(Jean Duvignaud 1921~2007)가 『축제와 문명』(*Fêtes et civilisations*)에서 "어느 문화도 파괴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파괴도 문화와의 관계없이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축제는 우리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괴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쿠란에 표현된 것으로, "신은 인간이 숯처럼 타버리게 될 때 인간을 구제할 것이다"라는 말처럼(ibid), 우리가 축제 속에서 숯처럼 탈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이상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축제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강한 척 하면서도 엄청나게 나약한 현대인들은 자기들 가슴 속 깊은 곳에 유토피아를 향한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꽁꽁 숨기고 살다가 축제에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34]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해당 사회문화적 표현의 허용범위나 방식, 기존의 규범이나 규칙 등이 기본적인 제약요인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가의 가능성이 축제적인 현상의 과격함이나 과도함 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축제는 보통 "신성한 존재에게 바치는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례행위이고, 모두 함께 어울려 난장을 즐기는 비일상적인 시간"으로 정의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축제는, 비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평소 금기시 되는 행위와 언어들이 잠시 용인되는 신성한 시간, 상호 신뢰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또는 기득권적 권력, 불평등성의 모순, 억압과 갈등, 어두움과 희미함을 걷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니 축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때로는 상당히 심오한 뜻을 가지며 인간의 심연을 표현하는 최상의 문화적 표현형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이기도 하다.[35]

대중적으로 상당 정도 알려져 있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팜플로나에서 매년 여름 7월에 개최되는 산 페르민 축제(Festival of San Fermin)는 일반인들에게는 관광축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수호성인인 성 페르민(San

34)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낸 프랑스 혁명 시기의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 거의 한달 정도 전에 개최한 '최고 존재의 축제(Festival of the Supreme Being)'는 1794년 6월 8일 개최된 전국가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개최된 축제였다. 물론 축제는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그가 주창하고자 하였을 수도 있는 혁명의 가치, 공화정의 가치, 평등과 이성의 가치 또한 동시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는 죽는다. 그런데 이 축제는 진실로 실패한 축제였는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고뇌가 녹아진 연구서가 있다. 프랑스 혁명의 의미와 축제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살펴볼만 하다. Jonathan Smyth, 2016, *Robespierre and the Festival of the Supreme Be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5). 레즈비언 공동체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구조적 맥락에서 수많은 갈등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Esther Rothblum & Penny Sablove가 공동 편집한 논문집 형태로 출간된 *Lesbian Communities: Festivals, RVs, and the Interest,* (2005, Harrington Park Press)에서는 레즈비언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페스티벌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 속에 나름대로 현실과의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스티벌의 중요한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Bonnie J. Morris의 "Negotiating Lesbian Worlds: The Festival Communities" 를 참조하기 바란다.

Fermín)를 기리는 축제에서 시작된 축제이다. 축제의 역사는 6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3세기 경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성인을 기리는 행사로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7월 축제로 자리잡은 것은 16세기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9일의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종교, 민속, 공연, 전통 경기 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아래 사진에서 황소들이 활보하는 행사는 '엔시에로(Encierro)'라는 소몰이 놀이의 확장된 형태이다. 전통적인 황소방목 과정 중의 한 단계가 축제적인 이벤트로 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축제에 포함된 것은 1844년으로 비교적 뒤늦게 공식프로그램이 되었다. 특히 이 소몰이프로그램이 유명해진 것은 헤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이 축제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팜플로나시는 헤밍웨이 동상을 건립하는 등 그를 기리고 있다.

거인 행진

엔시에로(Encierro)

출처: 다빈치, 『세계 축제 100』 p. 166~169

[그림 4] 스페인의 산페르민축제

축제참여자들은 모두 붉은 손수건을 목에 두른다. 이것은 빅터 터너가 말한 동료애나 공동체 의식, 평등성 등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축제에 참여한 이상 그가 누구든 모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황소놀이, 투우경기, 엔시에로 등의 행사는 지중해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남부 지중해 지역에서도 많이 펼쳐진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전체 국가적인 규모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었고,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등의 실질적 또는 행정적 중심 도시에 대한 불만 등이 잠재해 있던 곳이었다. 프랑스 남부지

역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남부지역에서는 상징동물을 검은 황소(taureau)라고도 말할 정도로 투우놀이에 열광하면서 파리를 중심으로한 소위 수도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축제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불만이 갈등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승화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나. 구조와 반구조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유럽이나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화려한 퍼레이드를 기본으로 하여 때로는 과격한 퍼포먼스를 동반한다. 카니발이란 부활절 전 40일의 사순절 금욕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제적 놀이를 통칭하는 말이다. 특정한 축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국가 대부분에서 이 시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규모의 축제적 놀이형태에 참여한다.

카니발은 가톨릭 사제 권한이 막강했던 중세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교회의 사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평민 또는 평신도들은 그 교리에 복종해야 했다. 그러나 사육제 기간에는 위선과 강요된 도덕, 권위가 무장 해제된다. 따라서 거칠고 우스꽝스러우며 평소의 사회적 금기들이 터져 나온다. 성직자 위선의 조롱, 외설 등이 용인되고 사회문화계층적 전도(顚倒)현상이 일어난다. 이 시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봄이 오기 직전의 전이적(轉移的) 시기하고도 겹친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복장, 자연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차림새,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것 같은 변장 등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순간적인 '극단의 자유'가 허용되는 시간이 된다. 더불어서 포용력, 이해력, 이타성, 다양성 등의 수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카니발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시기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전도의례이자 통과의례이다. 그래서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걸쳐 세계 도처에서 화려한 카니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이는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높아지며 이러한 기회를 더 자주 경험하면 할수록 꿈이라 여겨지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더불어 행복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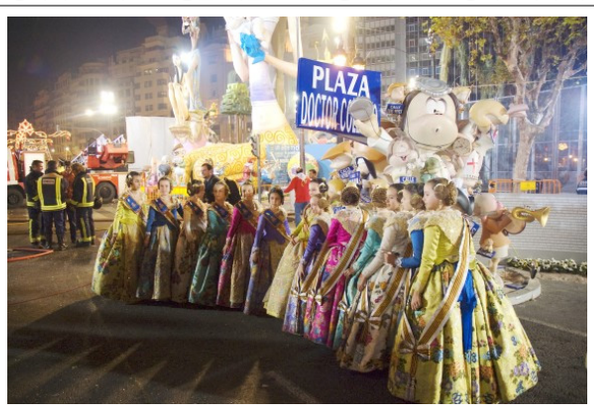
새로운 사회가 좀 더 분명히 도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것들을 모두 불태우는 행위를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축제 사례들은 세계 도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월 대보름의 제주의 들불축제가 가장 유명하다. 제주의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축제로서 기생화산인 오름에 들불을 놓아 밤하늘을 화려하게 비춘다. 화산섬 제주의 탄생을 의미하는 화산불꽃쇼, 전통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36]

https://blog.naver.com/rosi02/22095278923

https://blog.naver.com/shin8955/221221651402

[그림 5] 제주도 들불축제

파예(falle) 인형: 인형의 크기는 보통 8~10미터이고 크기가 30여 미터에 이를 정도로 큰 것들도 있다. 매년 가장 멋진 인형을 선정하여 그 축소 모형을 박물관에 소장한다. 주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인형들이 많이 제작된다.



어린이 축제의 여왕 선발대회: 각 파예스 위원회가 시민 가운데 선발한 어린이들을 모아 두어 차례 예선을 거친 후 그해의 어린이 축제의 여왕을 선발한다.

출처: 다빈치, 『세계 축제 100』 발렌시아 축제 부분 재 인용

[그림 6] 스페인 발렌시아 불꽃축제

36) https://www.jejusi.go.kr/buriburi/main.do 참조

발렌시아 페스티벌(Festivals of Valencia)로 통칭되는 발렌시아 불꽃축제((Las Fallas de Valencia)는 매년 3월에 열리는 봄맞이 축제이다. '파예스(Falles)'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Falles는 불꽃의 복수이다. 발렌시아 수호성인인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제이다.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스토리가 전해 내려오지는 않지만, 과거 목수들이 잔가지나 나무쓰레기, 망가진 가구 등을 태우며 놀던 작은 행사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로 발전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이견은 없다. 정치인, 연예인, 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다양한 인형이나 조형물의 퍼레이드 이후 축제 마지막 날 모두 태워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부정과 악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종교적 풍자도 자유롭게 표현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축제가 금지되는 경우도 겪었다. 기득권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재를 오랫동안 경험한 이들에게 이러한 축제는 더욱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갈등 표출과 승화기제[37]

가. 상생과 공존

앞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바흐친 (Michael Bakhtine, 1895~1975)은 '반(反)구조적 카니발'을 하나의 '소통시스템'으로 분석한다. 이것은 그의 '대화론'에서 말하는 상생과 공존의 원리를 기본적인 틀로 깔고 있는 것이다. 대화 주체는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다른 차이점들로 서로 연결된다. 그는 카니발을 대화론이 확장된 것으로 본다. 바흐친은 카니발로 사회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사육제가 바로 사회적 구조나 체계, 즉 사회관계를 현상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던 것이다.

축제는 사회집단이 세계관을 축제에 투사시키면서 가져다주는 '문화적으로 암시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것'이 되며, 중세의 공식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 된다.[38]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축제에서 표현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우주적인 '재생'의 관점이며, 이 경우에 축제는 제도적인 체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병마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카니발은 억압된 기존 질서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카니발은 위계, 위세, 규범, 금지를 없애며,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카니발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 곳에서 성장하면서 새로워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민중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한다.

37) 이 부분의 내용은『축제이론』(류정아, 2013, 커뮤니케이션 북스)의 내용 중 발췌, 재구성, 보완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38) Bakhtin, M.,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Gallimard, Paris, 1978, p.274

네덜란드 풍속 화가 피터 브뤼겔의 그림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1559)
왼쪽: 시민들이 광장에서 밤 늦도록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는 카니발 광경/ 오른쪽: 절제하고 엄숙한 사순절의 모습
고기와 빵, 술과 카드가 16세기 말 카니발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줌 (자료: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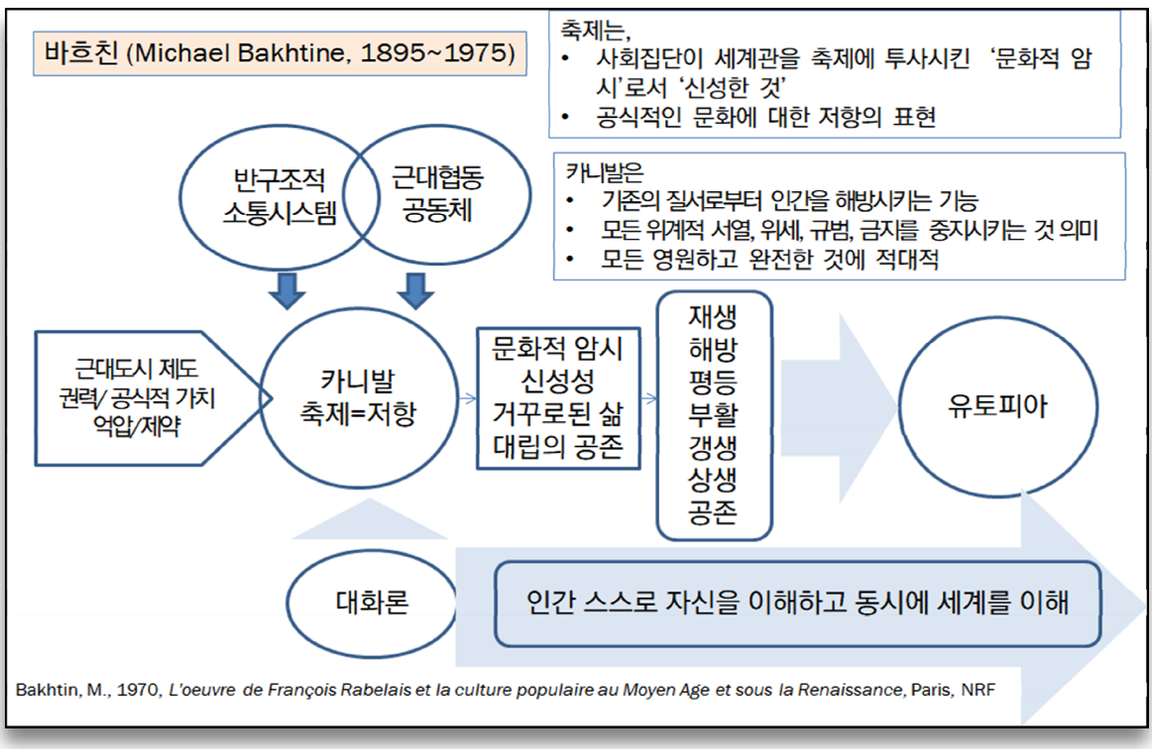
[그림 7] 피터 브뤼겔의 그림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바흐친은 미완성인 채로 열려 있고,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탄생과 결합하는 삶을 강조했다. 축제, 야단법석, 사육제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위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 공공의 장소에서 의례적인 탄생과 죽음, 끝남과 새로운 시작, 대단히 높은 것과 아주 낮은 것 등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것들은 축제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양가적이 된다.[39]

이 의례들을 바흐친은 '웃음의 대중문화'라고 불렀다. 축제는 이 웃음의 대중문화를 공식적인 문화 속으로 투영시키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 개념이란 결국 해방된 삶이거나 삶이 거꾸로 뒤집어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카니발로 뒤집어진 세상은 다시 극적으로 대립하는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긍정을 위해서 부정을 외치고, 존중을 위해서 과감히 조롱하고, 결국은 올라가기 위해 끝없이 추락한다. 카니발 속의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삶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이들이 참여하여 동시에 부활과 갱생의 경험을 하는 것이 축제인 것이다. 바흐친이 말하는 축제 개념을 개념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39) 류정아, 2013,『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 55~76



[그림 8] 바흐친의 일상성과 축제성 개념도

바흐친은 카니발을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타인 속에 투영된 자기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40]

바흐친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연결시키고자 한다는 개념은 페루의 태양제의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페루의 태양제는 유럽인이 남미를 점령하기 전 원주민들이 초자연적인 신으로 섬기던 태양에 대한 숭배의 의미로 지내던 일종의 종교의례였지만, 지금 연희되고 있는 태양제는 태양숭배 의례라기보다는 페루 원주민이 잃어버린 과거를 유토피아로 상정하여 다시 기억해내고자 하는 상징의례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페루의 태양제는 관광축제로서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겉으로 대단히 화려한

40) 바흐친은 축제적 연행행위가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제라고 보았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글쓰기 작업은 나를 타인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글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축제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되고 있는 책축제이다. 영국 웨일스 지역의 헤이온 와이라는 마을의 책축제는 헌책방 마을축제에서 시작되어서 이 작은 마을을 세계 최초의 책마을로 만들었다. 이제는 책 없이는 지역의 존재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서 책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상의 『세계의 책축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다』(2019, 가갸날)에서는 구비문학축제의 예를 들어서 문학축제, 책축제, 도서축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책은 축제를 통해서 지식의 저장소에서 상상력의 바다로 가게 해주는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책 축제뿐만 아니라,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작가 축제를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분적 또는 일회적 행사로 다른 축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작가 중심의 축제도 흥미로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며, 작품의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박완서 작가의 축제(일명 '박완서축제' -축제명은 작품의 키워드 중심으로 더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와 같은 것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완서의 저서는 제목도 상당히 재미있다: '휘청거리는 오후',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나목', '자전거 도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등이 있다.

모양을 띤다. 이 축제에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밀려들고 이로 인한 경제효과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경제 소득에 기여하는 효자 상품 정도로만 축제를 보려 한다면, 축제의 역사와 의미, 스토리 등에 숨어 있는 엄청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축제의 원형적 형태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페루의 태양제가 현재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현재는 남미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 축제의 기원적 의미는 태양신에 대한 경배와 희생의례이나, 현재는 페루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광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잉카제국: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방(페루·볼리비아)을 지배한 고대제국. 쿠스코는 안데스 산맥 해발 3,399m 지점의 분지에 있는 잉카제국의 수도, 한때 1백만 명 거주. 쿠스코는 케추아어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 잉카인들은 하늘은 독수리, 땅은 퓨마, 땅속은 뱀이 지배한다고 믿음. 쿠스코는 도시 전체가 퓨마 모양, 현재 인구 약 35만 명. 페루의 인종 구성은 토착민 45%, 메스티소(토착민과 유럽인 혼혈) 37%, 백인 15%, 나머지 3%는 흑인,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등. 총인구 3250만, 국민소득 약 7000달러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참조 재정리

[그림 9] 페루의 태양제와 원주민

페루의 잉카제국은 해발 3000미터 고지대에 쿠즈코(Cuzco)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남겨 놓았고, 마추픽추같은 거대한 태양의 도시를 건설한 왕국이었다.[41] 스페인 제국의 침입으로 100년 만에 멸망하고 잉카의 후예들

41) 뒤비뇨는『축제와 문명』(장 뒤비뇨 저, 류정아 역, 한길사, 1998, pp.90~94)에서 "1962년 페루 쿠즈코의 닫힌 축제"라는 제목으로, 당시 쿠즈코의 태양제를 그들이 처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필자가 번역할 당시 사실 뒤비뇨의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쿠즈코를 방문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 쿠즈코의 방문 경험과 함께 뒤비뇨의 실감 나는 묘사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절판된 책이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은 300년에 걸쳐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 원주민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페루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면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지금도 모국(母國)으로 간주될 정도로 존중받는다. 그들은 스페인인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 강요받으며 산다. 그러니 원주민들의 삶이 행복할 리가 없다. 자신들의 고유성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태양제는 이들의 수 백 년에 걸친 억압과 갈등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잉카의 후예뿐만 아니라 페루인 전체에게 이 축제는 현재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의 경제종속, 심각한 빈부격차와 실업률, 사회적 부패와 군부독재 경험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대변해주는 '진정한 의례'가 되는 현재 진행형 축제인 것이다.

나. 반복과 역설

아놀드 반 제넵(Arnold Van-Gennep, 1873~1957)이 말한 통과의례 중 전이기 단계 또는 과도기 단계로 불리는 단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에드먼드 리치(Edmund R. Leach, 1910~1989)는 축제의 개념을 페스티벌 설명틀[42]로 설명한다.

에드먼드 리치가 활동하던 시기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기능주의적 관점, 즉 사회는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그러한 평형을 깨려는 인자는 도태된다는 견해를 강조하던 학문적 분위기가 팽배하던 때였다. 그러나 리치는 균형을 추구하는 통합적 체계로서의 사회 모델을 부정하고, 이상적 규범과 실질적 실천 사이의 동력학, 모순, 차이를 강조하였다. 즉 사회는 다양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본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제도 당연히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시간의 단절성과 불연속성을 페스티발(Festival)의 속성으로 보고, 그러한 시간의 불연속성과 페스티발의 속성을 연계시키면서 현대사회의 역동적·갈등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것이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틀로 시간의 개념을 '반복적 대칭들의 불연속성'이라 보았다. 축제들은 연속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세속적 질서가 비정상적인 성스러운 질서로 이동하고, 이 비정상적인 성스러운 시간이 다시 정상적인 세속적인 질서로 바뀌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속성이라고 보았고, 여기서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네 단계의 지위 변화를 거친다. ① 신성화의례(The rite of sacralization, separation)와 분리의례의 단계(도덕적 인간은 여기서 '죽는다'), ② 주변적 지위(marginal state)의 단계(성스러운 상태에서 일상적 시간은 멈춘다), ③ 탈신성화의례(The rite of desacralization) 또는 재통합(Aggregation) 단계(인간은 다시 태어나서 세속적 시간은 다시 출발한다), ④ 일상적인 세속적인 삶의 단계 등으로 이어진다.[43]

42) Leach, E., 1961, "Time and False noses", *Rethinking Anthropology*, London, Athlone

여기서 바로 유명한 터너의 리미날리티 개념이 등장한다. 축제연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다. 빅터 터너(Victor W. Turner, 1920~1983)는 사회인류학자이자 상징인류학자였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 개념인 '리미날리티'와 '코뮤니타스'는 사실 혼동되어서 쓰이고 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을 말하는 리미날리티(Liminality)란[44]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을 말하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여 있는 시공간을 코뮤니타스(Communitas)라고 이해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다.[45]

터너는 의례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응집력이 존재하도록 기존의 맺고 있는 관계들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는 하나의 사실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구조와 연속적인 코뮤니타스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강조하였다. 터너는 이러한 관점을 심리학, 사이버네틱스, 언어학, 연행 분석 등으로 확장시켜 나갔다(Vincent, 1986: 109-110).[46]

리미날리티 단계는 일시적, 압축적, 비일상적 단계로 극도의 흥분이나 위험성, 일탈성 등이 용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freedom), 평등(equality), 동료애(friendship), 동질성(homogeneity) 등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리미날한 상태는 입회식이나 성년식에 참여한 '신참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도 가지지 않으며 어떠한 표식도 드러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괴물'이 되기도 한다. 즉 축제 속의 다양한 분장을 통해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모습, 그러나 본질적인 내부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축제 속에서 표현되는 모습들은 일상을 비틀면서 과격하고 대담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일 것이다.

유럽인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고통과 남미 지역의 토착민인 원주민의 전통이 만나면서 시작된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 카니발이 현재와 같이 삼바춤 퍼레이드 형태로 고정된 것은 1980년대의 초반이다. 동호회 형식의 각각의 단체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삼바 춤 결사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의상과 춤을 겸비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축제행렬을 준비한다. 삼바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참여하는 무용수들만 약 4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에서는 사순절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의 봄의 축제인 포르투갈의 '엔트루두(entrudo)'라는 축제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브라질이 다른 남미지역과는 달리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인 노예와 가난한 계층에 바로 받아들여져서 축제 기간 동안 더러운 물과 음식물을 서로에게 퍼부으며 때때로 상류층에 대항하는 폭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우려한 왕실은 19세기 후반까지 엔트루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다섯 번이나 내렸지만 잠시 사그러질 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20세기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엔트루두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효과로 엔트루두는 차츰 사라

43) 류정아, 2013, 『축제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 23~34 참조 재구성

44) 리미날리티란 문지방을 의미하는 리멘(Limen)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것으로, 문지방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평소에는 금기로 여겨지는 공간과 행위의 존재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45) 사육제 시기는 사순절로 들어가기 직전의 시기는 일상과 비일상이 겹치는 시기이며, 겨울과 봄이 만나는 접점이 되고,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전이기는 불확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증폭한다. 아놀드 반 제넵(A. Van Gennep)은 통과의례(Van Gennep, 1981), 빅터 터너(Turner, 1969)의 '리미날리티' 개념, 에드먼드 리치(Leach, 1961)의 'festival' 개념('격식성', '역할전도', '가장행렬') 등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46) Vincent, J., 1986, "System and Process, 1974~1985", *ARA*, 15:99-119

지고 '카르나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1850년경 브라질 상류층은 엔트루두를 대체하고자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카니발을 들여왔다. 최초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색종이 조각과 색 테이프를 날리며 축제 차량과 악단을 동원해 거리 행진을 하는 등 유럽 축제의 요소를 도입한 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카니발'이라고 불렀다.[47]

유럽인의 카니발 문화는 브라질 원주민의 전통과 풍습, 아프리카인 노예들의 흥취가 어우러지며 브라질만의 독특한 문화로 재탄생했다. 카니발 기간에 귀족들은 평민처럼, 남자는 여자처럼, 가난한 이는 왕자나 공주처럼 분장하고 행진하곤 했다. 이는 일 년 중 축제 기간만이라도 사회적 신분과 역할을 잊고 싶어 하는 의식의 표현이었다.

19세기 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 20세기 초까지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이 브라질 북부에서 남부로 대거 이주하였다. '리틀 아프리카'(Little Africa)로 불리던 빈민가에는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은 물론 러시아인, 유대인, 집시 등이 모여 살면서 자신들만의 음악과 리듬을 발전시켰다. 바로 이 문화 속에서 삼바가 탄생했다.

엔트루두를 즐기는 리우 시민들의 모습. 한편에서는 거리에 모여든 군중 위로 물세례를 하고 있다. (자료: 위키피디아)

엔트루두에는 가족끼리 집안에서 반죽을 던지고 물총을 쏘는 장난을 쳤다. (자료: 위키미디어 커먼스)

엔트루두 기간 동안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로 물총을 쏘는 장난으로 싸움으로 번지는 게 흔한 일이었다. (자료: 위키피디아

사진출처: https://www.google.co.kr/리우카니발

[그림 10]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의 과거와 현재

그들에게 삼바는 아프리카의 신과 조상에게 기원을 드리며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또 노예 신분에 대한 항의, 울부짖음 등의 의미도 포함돼 있었다. 삼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완전히 브라질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어 브라질 카니발의 상징, 나아가 브라질 국가의 상징이 됐다. 1935년 리우 카니발부터 정부

47) 다빈치 축제 편집팀 엮음, 류정아, 김홍희 감수, 『세계 축제 100』, 다빈치

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1940년대에 이르러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1964년부터 시작된 20여 년 간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카니발은 지속됐다.

카니발은 정치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축제 열기로 해소해주었고, 열정이 넘치는 여러 삼바스쿨 구성원들의 퍼레이드는 때로 세태를 통렬하게 풍자하고 정부 관료들에게 야유를 보내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갔다. 브라질의 카니발은 단순히 화려한 축제가 아니며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브라질의 정체성이 담긴 행사로 봐야 한다. 또 정치에 대한 불만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행사이기도 하다.[48]

리우카니발 역시 단순한 거대 이벤트라기보다는 그 속에 숨은 갈등, 역설, 반목 등이 다양한 문화간의 융합과 승화과정을 거친 역사문화적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노예제도와 관련된 축제이지만, 개최 지역은 유럽인 축제가 있다. 노팅힐 카니발의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인종·계층간 갈등을 문화다양성으로 녹여서 완성한 축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49]

1964년에 시작된 노팅힐 카니발은 영국 런던의 노팅힐 지역에서 주로 아프로-카리브(Afro-Caribbean) 이민자들이 1964년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자 8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개최하던 행사로부터 기원한다. 19세기 초 카리브해 지역의 카니발이었던 트리니다드토바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이 축제는 노예무역 폐지를 기념하던 행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인도 제도의 이국적인 모습들이 축제에 스며들어 있다.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에 버금갈 정도로 유럽에서 그 규모가 가장 커서 세계 10대 축제의 하나로 꼽힐 정도이다.

CLAUDIA JONES (1915-1964)

https://www.google.co.kr

[그림 11] 영국 런던 노팅힐 페스티벌 이미지와 클라우드 존스 사진

48) ibid. 참조 재구성
4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3836&cid=42836&categoryId=42836 참조 재구성

카리브해 최남단의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받아들였다. 이후 1797년부터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기독교 문화는 아프리카 흑인문화와 뒤섞이면서 독특한 축제로 표현되었다. 특히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자유와 해방의 축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런던의 노팅힐에 카리브 해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통에의 향수가 대륙을 넘어서 축제열기로 이어졌다. 노팅힐 카니발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카니발처럼 고통 받던 노예 하층민의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하며, 하얀 분장으로 유럽인들을 조롱하기도 한다.

런던 서부의 노팅힐은 흑인 이민자들이 대거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던 곳이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적대시 했으며, 이는 1958년 8월 노팅힐 인종 폭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지역 주민들이 이민자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들의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카니발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59년 저널리스트이자 정치운동가였던 클라우디아 존스(Claudia Jones)의 주도 하에 축제로 표현되었다. 이후 존스는 '카니발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이 축제는 영국사회의 인종차별과 계층갈등이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실감하게 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노팅힐 카니발은 런던이 가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문화가치의 다양성과 그것의 역동적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적 표현기제로 승화되고 있다.

제2절 감추기와 드러내기

1. 객관화된 환상주의

가면은 자기 변형의 가장 극적인 형태로 축제적 시공간 속의 가면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기회이다. 브릴(Bril, 1983)은 가면을 '객관화된 환상주의'라로 표현하였다. 가면 속에 인간의 갈등과 애증병존이 투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면은 진실 된 것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의 모호성을 겉으로 드러낸다. 때로는 인간 지성을 비웃기도 한다.

축제 속에서 사용되는 많은 가면은 고유한 의미가 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면서 현재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연희되는 축제들이 과거의 종교적 신성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획득하고 있듯이 축제 속의 가면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크로커(Croker, 1982)는, 많은 가면들이 기존의 의미가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전통적인 사회적인 관습이 여전히 사회구성원들에게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가면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반 연행자나 관람객이 가면의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식이 현대사회에서도 연희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가면을 쓰고 행하는 의식들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축제 속에서 사용하는 가면의 정체가 애매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으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현대인들이 축제 속에서 찾고자 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즉 가면과 가면축제의 다층적인 의미는 여전히 현대인에게 유효한 것이며, 이 애매한 가면의 신성성은 인간이 일상 속에서 미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내면의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축제 속의 가면은 주로 얼굴을 가리는 도구이지만, 보통은 얼굴과 몸을 동시에 감추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가면은 개인의 정체성을 감춤과 동시에 개인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해 있는 문화구조 속에서 다의성을 가지지만, 가면은 개인의 문화적 가변성을 고정시켜 단순화 시킨다. 가면을 쓴 인간은 더 이상 기존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아니 이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수많은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면을 쓴 인간은 기존의 문화와 자연, 사회의 규칙, 도덕성, 선악의 기준 등의 접점에 서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 즉 축제가 부여한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표현된다. 때로는 신성하고, 초월적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대범해지고 용기도 많아지고, 거칠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가면은 대단히 자유롭게 변장하고 숨기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위선성을 대놓고 표현하기도 한다. 기존의 도덕 기준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가면은 기존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얼굴과 정체를 감추고 가리지만(camouflage),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정체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외치는데(proclamation) 대단히 효과적인 기제로서, 가리는 것과 부각시키면서 외치는 것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한다.

브릴(ibid: 20)은 이것을 동물의 보호색 기능으로 설명한다. 즉 가면을 쓰는 행위란 변장과 은폐의 수단이며, 동물의 보호색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의태적 행태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살아있는 존재와의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가면의 이러한 특징을 '신성성'과 '타자성'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인간의 한계 넘기

가. 초자연적 신성성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나약하다. 인간은 이러한 약점을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에 의존하고 종교적 신앙심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희생양을 바쳐서 신의 보상과 보답을 구하는 것 등도 사실 일방적인 신에 대한 봉사만이 아니다. 신으로부터의 반대급부를 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인간적인 존재를 상정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초인간적인 능력을 부여받기를 지속적으로 원해 왔다.

축제적인 비일상적 상황에서 가면을 쓰는 행위는, 일상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복종과 숭배의 접점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면을 쓰고 축제에 참여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50]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대조적인 것들을 순간적으로 결합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성과 속, 자연과 문화, 순수와 오염, 남성과 여성의 대조는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대조적이고 갈등을 하면서 사회분열적 요소로 작동하는 양 극단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축제 속의 가면으로 표현될 때 이 갈등 양상은 세속적인 제약으로부터

50) '복면가왕'이라는 연예인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동 프로그램이 미국에도 판매되어 완전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감히 엄두도 못낸 것을 할 용기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소감을 말하곤 한다. 시청자들 또한 가면 속에 감춰진 인물을 현재 그가 쓰고 있는 가면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 속의 인간과 가면은 실제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는 가면을 쓴 사람과 가면은 암묵적으로 서로 동일시 된다. 또한 가면이 오히려 평소에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실제 노래 실력만을 오롯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가면 쓴 얼굴이 오히려 노래하는 이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순간이 되는 아이러니 또는 역설의 순간이 된다.

일시적으로 해방되고, 서로간의 지위가 뒤바뀌고,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불만 요소를 가감없이 노출하면서, 때로는 과격하면서도 공포스럽게 외쳐대기도 한다. 여기서 일상에서 억압되었던 인간들은 평소에는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환희를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안도하면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51]

결국 가면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극단을 결합시키고 또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정면 대결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된다.

축제의 가면에서 겨울은 재앙의 원인이나 재앙의 막강한 힘으로 표현되고, 봄은 씨를 뿌리고 생명을 잉태시키는 창조성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만(특히 유럽의 경우에 자연은 인간이 충분히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사실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싶은 나약한 인간의 열망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한 가면을 쓰고 봄을 맞이하는 카니발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이 가면축제 의식을 통해서 자연과 '연맹협약' 또는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토지, 하늘, 계절의 변화 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비, 눈, 태풍, 가뭄 등으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과의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인간 공동체가 평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는 이러한 의식에 공동체 구성원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의 사회적인 연대감은 더욱 돈독해진다. '자연적'이라고 불리는 축제들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원시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가면의 주요 기능과 의미가 인간을 위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악령이나 적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기 위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인상이 험악하고 뿔이 잔뜩 나 있으면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악령보다 더 무서워야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면을 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화적 동물, 악마보다 더 무서운 악마의 형상, 신성한 존재, 이미 죽은 조상의 영혼 등으로 표현된다. 살아 있는 세속적인 인간은 평소에는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위와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초인간적 힘을 얻게 됨을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일탈적 상황, 신성한 방종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가면 축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인 금기를 뛰어넘는 것이 허용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할 것이다. 가면을 쓴 노래 경연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면 때문에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거나, 가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재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대담하게 춤을 추면서 축제에 참여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는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면을

51) 가면축제에서는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가면들이 흔히 짝을 이뤄서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바스크 지방에서는 긍정적 의미의 '붉은 가장행렬'과 부정적 의미의 '검은 가장행렬'이 대조적인 짝을 이루며, 품위 있고 행실이 바른 '자말쟁'(유럽 전역에서 발견되는 목마인의 모습)과 역겹고 음탕한 '칼데레로스'(땜장이)가 발견된다. 또한 같은 지역인 이투렌에서는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요알두나크'와 둔하고 지저분한 '아르트자'(곰)가 있다. 스위스 뢰첸탈에서는 공격적인 괴물형상의 '체크게타'와 부드럽고 매력적인 '오치'가면이 대조를 이룬다. 독일지방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유형과 부정적이고 괴물같은 동물유형이 대조를 이루며, 신라틴 문화권에서는 이와 반대로 괴물같은 인간과 선한 동물상이 나타난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비엘리니스'라는 잘생기고 멋진 가면과 '브루티니스'라는 못생긴 가면이 대비를 보인다.(존 맥 외, 2000: 206-210 참조)

착용한 인간이 평소에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초인간적 힘을 부여받은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일상적 행위가 상당한 정도 용인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대단히 흥미롭다.

나. '타자성'의 획득

가면은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변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가면은 일상의 전도를 통해서 기존 체계의 정당화가 아닌 보다 상호적인 이해의 상황에 들어가는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자가 되는 것이다.

술래잡기, 사냥놀이, 전쟁놀이 등은 모두 자신을 잡으려는 적들을 따돌릴 때 승리하는 게임이고 놀이이다. 여기에 수반되는 감추기, 과시하기, 위협하기, 속이기 등의 행위들로 인해 타자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타자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타자가 되고, 타자를 이겨서 자신을 보호하고, 종국에는 자신을 다시 알게 된다.

축제 속에서 '타자성'을 드러내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가리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또 다른 삶의 양태의 표현, 즉 타자성 획득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타자성의 획득은 타자성의 이해이고, 이것이 모이면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완전한 상태에 진입하게 된 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일 수 있을까?

브릴(Bril 1983:25-26)은 축제의 가면은 세속적인 인간의 불안을 다시 분명히 확인시켜주면서도 동시에 이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목적이나 실질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가면을 쓰거나 변장을 하면서 어떤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는 '자아' 이외의 '타자'의 존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다. 즉 가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나 권한의 외부에 있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것에 의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타자성'을 나의 (또는 사회의) 내부로 끌어들여 내면적으로 불안하고 연약한 자아(또는 사회)의 또 다른 자기정체화 (identification)의 과정이다. 즉 한마디로 불안에 대한 사회문화적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면과 가면, 또는 가면과 그 가면을 쓴 인간의 대조는 세상을 양극단으로 나누어 보려는 세계관의 표현이다. 세상을 아주 단순히 구분해 보는 것이다. 간혹 이 두 개의 양극단의 성격을 동시에 조롱하는 광대가 나타나 판을 뒤엎어버리기도 한다. 즉 매력적이면서도 혐오스럽고, 재치 있으면서도 둔하고, 우아하면서도 꼴사나운 어릿광대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자연적, 동물적, 일탈적, 그리고 자유로움이라는 특성을 드러낸다. 즉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또는 '규범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창조성의 발현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대비적 성격의 가면들은 한편으로는 불확실성 속에서 자유롭게 양극단이 표현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

는 극한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한 성격의 가면보다 악한 성격의 가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52] 이것은 인간을 위협하는 부정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악과 상징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실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재앙과 불안감에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호본능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아펜젤(Appenzell)의 겨울마스크: 1월 12일 추운 아침에 Urnach에 성 실베스트르의 니콜라인 Silvesterkläuse가 나타난다. 나뭇잎, 地衣, 솔방울 등으로 꾸며진 것으로 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Silvesterkläuse인 les Nicolas de la Saint-Sylvestre (성실베스트르의 니콜라)는 자연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존재로서 이 사진은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나뭇잎과 솔방울, 나무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아펜젤(Appenzell)의 겨울마스크는 성실베스크 니콜라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가면이다. 니콜라 성인과 관련된 가면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색종이로 장식된 망토 속에 흰 옷을 입고 의식을 인도하는 나팔을 불고 있는 가면이 있고, 오스트리아에는 양털로 만든 겉옷을 입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붉은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괴물형상의 크람푸스(Krasmpus) 가면이 니콜라 성인의 도착을 알린다. 특히 실베스테르클라우스라는 이름의 전신가면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면으로 자연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겨울식물과 마른 곡식으로 장식된 자연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흰 유령모양과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니콜라 성인을 표현한 가면이 죽음의 겨울을 상징하기도 한다.(De Sike, 1994:64)

silvesterkläuse - Google 검색

[그림 12] 실버스터글라우스(Silvesterkläuse) 가면 활용 축제 사례

가면을 사용한 축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표현하는데 특이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도처에서 연희되고 있는 가면축제들이 그것이 본래 근원했던 의미들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이들의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성성의 표현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많은 축제들이 과거 삶의 연속선상에서 연희되기보다는 19세기 말 이후의 민족주의적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하나의 '민속화된' 축제의 성격을 띠거나, 아니면 최근의 관광문화의 발전이나 이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복원되거나 재창조된 것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면축제를 분석하면서 갖게 되는 지속적인 의문은 가면 또는 가면축제를 문화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

52) 독일의 가장 유명한 가면유형 중 하나로 악마형 가면을 들 수 있다. 악을 형상화한 부류들로 슈람베르크, 트리베르크, 콜나우, 프라이부르크 등의 악마가면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가면풍속에 관대하지 않았던 중세 때에도 종교적 의미를 담은 행사와 연극을 위해 교회측이 직접 이 가면과 의상을 참가자와 출연진들에게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오펜부르크의 마녀, 그뢰징의 'Hottscheck', 키르히차르텐의 마녀와 브로인링의 마녀 가면이 축제 때의 마녀가면의 정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김면, 2002:36-37)

서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대의 가면의식은 비록 그것이 대단히 오래 전부터 연희되어 왔거나 신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신화성이나 종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비록 풍농과 풍요의 목적에서 근원한 특정지역의 가면축제라 할지라도, 지방의 한 마을에서 열리는 가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가면을 쓰고 축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보다 풍성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면축제가 과거의 종교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성과 관습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는 가면축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괴물이나 동물로 형상화되는 악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적 재앙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 내면에 속해있는 부정, 불신, 갈등, 번뇌 등의 표현일 수도 있다. 즉 가면축제 속에서 표현되는 가면의 선악은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 중 극단적인 양측면의 대립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면에서 보이는 선악의 상징적 대결은 이러한 양극단의 대립을 통한 갈등과 불신의 화해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면축제에 적용시키면, 가면을 쓴 인간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이것은 과도기적이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롭고 분명하면서도 안정적인 새로운 상태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한 단계인 것이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가면들이 이러한 계절적 주기변화와 사회적 이행과정을 표현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계절적 성격의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가면의 사용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적 전이기나 생의 주기변화에 관련된 전이기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불확실성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가면과 가면축제연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는 작업은 기존의 사회구조에서 요구하는 규범적 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인 것이다.

결론

이 연구는 본 연구자의 연구원 재직 기간의 마지막 2년 동안의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이다. 20여 년간 수행했던 그 수많은 정책 연구의 총 정리가 아니라, 기존의 정책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했던 축제연구의 이론적 논의부분에 대한 개설서에 해당한다.

정책보고서는 항상 즉각적으로 효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개념의 이론적 문제를 찬찬히 다뤄내기 어렵고 실제로 정리를 해낸다 해도 무시되거나 중요치 않은 것, 아니면 별 소용이 없는 것 정도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축제이벤트와 관련된 많은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나 가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연구원의 정책보고서로는 정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오래 동안 목말라 했는데, 이렇게나마 2년에 걸쳐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그 2년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결과물이다. 사실 본문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대단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연구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학문적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다. 아쉽게나마 기존의 다른 연구물로 발표하면서 고민한 내용들을 수정 보완한 부분들도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참고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첫 번째 단계라면 향후 2차년도에 진행될 연구는 좀 더 최근의 축제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축제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축제 환경을 분석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환경과 축제, 예술과 기술의 융합 환경이 축제의 내용과 개최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화콘텐츠의 축제적 변형과정과 ICT 테크놀로지, 뉴미디어시대의 예술과 축제 등 수많은 흥미로운 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찌 보면 생각보다 빨리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어디까지 연구원의 특별과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차기 연도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올해의 이 연구는 중요한 안전핀과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는 아마도 연구원을 퇴임하는 이후에나 시간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원의 특별과제 1차 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다음 연구로 다시 미룰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 바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심층적인 분석과 논증, 구체적인 데이터 등이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는 분명하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연구와 부분적인 현장조사 방법이 활용되었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해석도 많이 포함되었음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자료에 근거한 연구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축제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한 시사점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연구시도로서는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 본인 또한 후학들에 의해서 좀 더 심도깊은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면, 2002, “전통 가면의례와 축제문화”, 독일언어문학, 18집, p.301-324
- ____, 2002, "독일민족의 문화전승: 슈바벤알레만 지역의 가면민속연구“, EU연구, 11호, p.33-49
- 김상유, 2004, “작은 축제, 큰 융화: 스페인 아세우체의 괴물가면축제”,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정하, “팔리오(Palio) 축제-시에나의 팔리오와 펠트레의 팔리오를 중심으로”, 유럽문화정보센터, 『유럽의 축제문화』, 연세대 출판부, 2003.
- 김태연, 박소영, 남정대, 김기일, 양승조, 허성태, 이시준, 이경재 공저, 2020, 『축제: 일상의 초월과 경계 넘나들기』, 동연
- 김헌, 2021, 『신화와 축제의 땅 그리스 문명기행』, 아카넷
- 김혼비, 박태하, 2021, 『전국축제자랑: 이상한데 진심인 K-축제 탐험기』, 민음사
- 다빈치 축제 편집팀 엮음, 류정아, 김홍희 감수, 『세계 축제 100』, 다빈치
- 뒤비뇨, J. 저, 류정아 역, 1998(1973), 『축제와 문명』, 한길사
- 류정아, 2003, “축제의 현재적 의미와 표상”, 『축제와 문화』, 유럽문화정보센터, 연세대출판부
- 류정아, 2004, “축제의 연행론적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vol.47, pp. 159~178, 한국프랑스학회
- 류정아, 2004, “연극축제의 세계화 가능성과 문제점: 아비뇽 페스티벌과 과천 한마당축제”, 『축제로 이어지는 한국과 유럽』, 유럽문화정보센터, 연세대출판부
- 류정아, 2006, “가면의 다중적 의미와 가면축제의 맥락적 이해”, 『축제문화의 제현상』, 유럽사회문화연구소
- 류정아, 2006,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축제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제8호, 인문콘텐츠학회
- 류정아, 2013, 『축제이론』 , 커뮤니케이션북스
- 바타유, G. 저, 조한경 역, 2020(1973), 『종교이론: 인간과 종교·제사·축제·전쟁에 대한 성찰』, 문예출판사
- 박완서, 2020,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 _____, 2020,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세계사
- _____, 2021, 『엄마의 말뚝』, 세계사
- _____, 202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웅진
- _____, 202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 _____, 2021, 『나목』, 세계사

- _____, 2021,『자전거 도둑』, 다림
- 이미원, 2016,『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전통과 퍼포먼스: 전통연희의 현재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존 맥 외 저, 윤길순 역, 2000,『마스크: 투탄카멘에서 할로윈까지』, 개마고원
- 주지완, 2014,『뉴욕의 축제』, 문학세계사
- 주현식, 2019,『호모 퍼모먼스: 담론의 시대에서 퍼포먼스의 시대로』,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 표정옥, 2009,『놀이와 축제의 사회성』, 서강대출판부
- 하위징아, J., 저, 이종인 역, 2010,『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 Abrahams, R. D., S. Kalcik, 1978, "Folklore and cultural pluralism", *Folklore in the Modern World,* Dorson, ed. Mouton Pub. The Hague
- Allen, J., W. O'Toole, R. Harris, I. McDonnell, 2011, *Festival & Special Event Management*, John Wiley & Sons Australia
- Ben-Amos, D., K. S. Goldstein, 1975, *Folklore: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Mouton, The Hague, Paris
- Bakhtine, M., 1978,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Gallimard, Paris
- Bakhtin, M., 1970, *L'oeuvre de François Rabelais et la culture populaire au Moyen Age et sous la Renaissance*, Paris, NRF
- Bakhtin, M., 1978,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Gallimard, Paris,
- Bauman, R., C.L. Briggs, 1990,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 on Language and Social Life", *ARA*
- Bauman, R., 1977, *Verbal Art as Performance,* Waveland Press, Illinois
- Beeman, W. O. 1993, "The Anthropology of Theater and Spectacle", *ARA*
- Belmont, N. 1974, *Arnold Van Gennep: le créateur de l'ethnographie française*, Payot, Paris
- _____, 1973, *Mythes et Croyance dans l'ancienne France*, Flammarion, Paris,
- _____, 1981, "La notion du rite de passage", *Les Rites de Passage d'Aujourd'hui*, L'Age de l'homme
- _____, "Le Folklore refoulé, ou les séductions de l'archaime", *L'homme*, 97-8, Jan-Juin,XXVI(1-2):259-68, 1986.
- Ben-Amos, D., K. S. Goldstein, 1975, *Folklore: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Mouton, The Hague, Paris
- Benamou, M., C. Caramello, eds., 1979, *Performance in Postmodern Culture, Madison*, Wisconsin
- Bonnet Carbonell, J. et L. S. Fournier, Dir., 2004, *Fêtes et rites agraires en Europe:*

Métamorphoses? L'Harmattan, Paris

- Bril, J., 1983, *Le masque ou le père ambigue*, Payoy
- Brown, S. & James, J., "Event design and management: ritual sacrifice", *Festival and events management: an international arts and culture perspective*, ed. I. Yeoman, M.
- Caillois, R., 1989(1938), *Le myth et l"homme*, Galiimard, Paris
- _____, 1989(1950), *L'homme de le sacré*, Gallimard, Paris
- _____, 1991(1958),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열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 Chiva, I., "Les rituals de parenté", *Annales*, E.S.C, 1978.
- Cox, Harvey, 1971, *La fête des fous: essai théologique sur les notions de fête de la fantasie,* Seuil, Paris,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 Croker, J. C., 1982, "Ceremonial Masks", in *Celebration: Studies in Festivity and Ritual*, ed. Victor Turner, Smithsonial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 De Sike, Y., 1994, *Fêtes et croyance populaires en Europe*, Bordas
- De Cesco(texte), F., Kazuyuki Kitamura(photo), 1980, *Cent Belles fêtes d'Europe*, Hatier
- Donnat, O. et Paul Tolia, 2003, *Le(s) public(s) de la culture*, Press de Sciences Po,
- Dorson R. M., 1978, *Folklore in the Modern World*, Motion Pub, Hague
- Fournier, L. S., dir., 2011, *La fête de village: Continuités et reconstructions en Europe contemporaine*, L'Harmattan, Paris
- _____, 2017, *L'inventaire des fêtes en Europe*, L'Harmattan, Paris
- Freitag, M., 1971, «De la ville-société à la ville milieu», *Sociologie et Société,* vol. III, n.1, mai, Le pres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Goffman, E., 1973, *La mise en scène de la vie quotidienne:* 1. La présentation de soi, Minuit, Paris
- _____, 1976, "Performance", *Rituals, Plays and Performance: Reading in the Social Science/Theatre*, by R. Schechner, M. Schuman
- Harsløf, O., 2020, T*he Great Festival: A Theoretical Performance narrative of Antiquity's Feasts and the Modern Rock Festival, Routledge*, London & New York
- Hymes, D., 1975, "Breakthrough into performance", in Folklore: 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ed. D.Ben-Amos & K.Goldstein, Mouton, The Hague
- Jakobson, R., 1979, "Le folklore, forme spécifique de création", *Questions de Poétique,* pp.5-71, (traduit de l'allemand par Jean-Claude Duport), Seuil, Paris
- Leach, E., 1961, "Time and False noses", *Rethinking Anthropology*, London, Athlone
- Lévi-Strauss, C. 1979, *La voie des Masques*, Libraire Plon

- _____, 1988, *L'identité*, PUF, Paris
- Casay Malarcher, 2020, *The Dragon Boat Festival*, Seed Learning, Series Editor Casey Malarcher
- McClusky, P., 2015, *Ontario Garlic: The Story from Farm to Festival,* History Press
- Mesnil, M., 1974, *Trois essais sur la Fête: du folklore à l'ethnosémiotique,* Bruxelles
- _____, 1976, "La fête masquée: dissimulation ou affirmation?", *Culture (Unesco)*, vol.III, N.2, pp.11-30, 1976.
- National Anti-Slavery Festival, 2017(1858?), *Report of The Twenty-Fourth National Anti-Slavery Festival,* Forgotten Books
- Rick Steves & Gene Openshaw, 2017, *Rick Steves' Euroorean Festivals*, Avalon Travel
- Rihtman-Augustin, D., 1978, "Traditional culture, Folklore, and Mass Culture in contemporary Yugoslavia", in *Folklore in the Modern World*, Dorson, ed.
- Robinson, L., 2020, *The Naadam Festival*, Seed learning, Series Editor Casey Malarrcher
- Rothblum, Esther & Penny Sablove Eds., 2005, *Lesbian Communities: Festivals, RVs, and the Interest*, Harrington Park Press.
- Schechner, R., 1985, *Performance Theory*, Routlege, revised ad expanded, N.Y.
- Schechner, R., 1977, *Essays on Performance Theory 1970-1976*, Drama Book Specialists, N.Y.
- _____, 1985, *Between theater and Anthrop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_____, 1988, *Performance Theory*, Routlege, revised and expanded, N.Y.
- Schechner, R. & Appel, W., eds., 1990, *By means of Performance: Intercultural studies of theatre and ritu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myth, J., 2016, *Robespierre and the Festival of the Supreme Be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Turner, V., 1986, *The Anthropology of Performance*, PAJ pub, N.Y.
- Tuner, V.-W.,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 _____,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Aidine
- _____, 1974, *Drama, Field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haca:Cornelle Univ. Press
- _____, 1979, *Process, Performance and Pilgrimage: A Study in Comparative Symbology*, Ranchi University
- _____, 1982,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Performing Art Journal Publications, N.Y.
- _____, 1986, *The Anthropology of Performance*, PAJ publication, N.Y.

- _____, 1990, "Are there universals of performance in myth, ritual, and drama?", in *By means of Performance*, ed. R. Schechner and W. Appel,
- Turner Wilcox, R., 2011, *Folk and Festival Costume: A Historical Survey with over 600 Illustrations*, Dover Publications. INC. N.Y.
- Ulrich Kuhn-Hein (ed.), 2001, *Feste feiern in Europa*, (심희섭 역, 『유럽의 축제』, 컬처라인)
- Van Gennep, A., 1981(1909), *Les rites de passage*, Picard
- Van-Gennep, A., 1980, *Coutumes et Croyances populaire en France,* Editions de Chemin Vert, Paris, "avant-propos et présentation" par Alain Pelizzo
- _____, *Manuel de Folklore français contemporain*, ED. A et J.Picard et C, 1949-1988.
- Vincent, J., 1986, "System and Process, 1974~1985", *ARA*, 15:99-119
- Yvonne de Sike, 1994, "Binche en fête", *Fêtes et croyances populaires en Europe*, BItalie, Turin

ABSTRACT

Analysis of the Humanities Discussions of Festivals

RYOO, Jeungah

The festival-related policy task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did not contain much of the concerns about the essential problems of the festival itself. Instead, more emphasis was placed on evaluating, investigating, measuring, quantifying, and predicting the factors surrounding the appearance of the festival, such as economic and policy effects, technical content analysis, festival budget, festival satisfaction, participation, and tourism effect. etc.

In fact, in most of these studies, there is usu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y results. There have been many conventional studies, rather tha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festival itself.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results are only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or the expected effect to be revealed. Of course, these studies are also important,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actual development of the festival.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ost policy studies are limited to this method.

On the other hand, if you focus on the content, meaning, and value of the festival, the contents of the study can be radically different. In order to analyze these aspect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humanities discussions of the festival.

Therefore,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concepts that can be usefully used when analyzing festivals from such a humanistic point of view were examined and a few related cases were briefly presen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festival policies as well as academically by increasing the depth of festival research conducted in various way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onceptual background, the concepts of homo ludens and fantasy, festive utopia and the expression of conflict phenomena were briefly explained from the principle level. And the expansion of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festival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context was explained with concepts such as regionality, cultural identity, and social participation. This becomes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humanistic analysis of the festival.

Second, important keyword concepts of festival performance analysis were summarized and organized, and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the performance perspective to festival analysis was emphasized: performance theory as a method and mechanism of communication, connection between text and context, mode in which religion and tradition are expressed in festivals, process of folklorisation as tradition meets festival etc.

Thir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stivals and conflicts, I tried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cultural analysis that occurred because the existing festival studies were not analyzed in context. In other words, it was pointed out that most of the existing festival research focused only on the process of acquiring identity through the promotion of leisure activities or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or its effects. Then, it was explained through examples that the function of the festival and the multi-layered meaning in the cultural context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festival. In relation to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the festival, core issues such as exposure of social structural problems at a more intrinsic level, the role of the festival as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and finding the beginning of conflict resolution are not actively addressed in festival research. For this, a festival must be analysed as an expression of rapid social change and dynamic characteristics,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the festive time, the contradiction and resistance structure revealed in the festive expression of conflict, the conflict between structure and anti-structure, the expression and sublimation of conflict, etc.

Finally, I tried to emphasize the need to study the fact that masks, which are used as props for festivals, actually have an important role and meaning in various ethnic and cultural structures.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n many cases masks are a key tool of festivals or, by extension, the purpose of the festival itself, we will examine what humans essentially hide and reveal with masks and mask festivals. In fact, the study of masks and festivals is an area that I have been wanting to study in depth for a long time. A more in-depth study continues in future stud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meaningful stepping stone.

Problems such as the substantive meaning to be revealed through the mask, the desire to transcend human limitations, the recovery of otherness, the overcoming of uncertainty, and the harmony between symbols and representations will be examined. In other words, it started with the question that the mask does not cover, but what it wants to reveal, and that what is hidden inside may sometimes be closer to reality than what is revealed in the human form.

Although it is clear that all of the above studies are important research topics, it was difficult to supplement them with in-depth analysis, argumentation, and specific data due to the realistic conditions of this study. It cannot be denied that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and partial field research, and included man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researcher's personal judgment. However, as a research attempt tha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to researchers interested in festival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it will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In the future, I also hope that more in-depth studies can be conducted in a variety of ways by future researchers.

집필내역

연구책임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제의 인문학적 제논의 분석 연구

발 행 인 김 대 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일 2021년 12월 31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17-8 93300
D O 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56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류정아(2021), 축제의 인문학적 제논의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56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93300
9 788960 359178
ISBN 978-89-6035-917-8